

한국 근대 ‘최초’의 여성음악가 임배세
(林培世, 1897-1999):
노래로 세상의 변화를 추구하다

장 정 윤

1. 들어가며
2. 삶의 여정
3. 음악, 그리고 사회활동
 - 1) 첫 번째 시기(1923년 이전): 조선의 유명한 성악가
 - 2) 두 번째 시기(1923년-1928년): 미국 유학과 사회 문제의식의 발현
 - 3) 세 번째 시기(1928년-1945년): 디아스포라, 조선의 독립과 여성을 위한 실천
 - 4) 네 번째 시기(1945년 이후): 신앙과 일상으로의 귀환
4. 작품, <금주가>(禁酒歌, 1918)와 <나의 성경>(1938년경 추정)
5. 나가며

개 요

본 논문은 한국 근대 음악사에서 ‘최초’의 여성 작곡가이자 성악가로 언급되지만, 지금까지 연구되지 않았던 임배세(林培世, 1897-1999)의 삶과 활동을 추적하여 밝히고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분석하여, 한국 근대 초기 여성음악가로서의 역할을 새롭게 조명해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다양한 1차 자료를 바탕으로, 유명한 소프라노이자 서구 기독교의 영향과 식민지 경험 속에서 음악 교육을 받은 한 명의 여성 음악인이, 배움에 대한 열망과 자아실현의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음악가로서의 책임과 여성의 사회적 위치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게 되는지를 면밀히 살펴본다. 특히 그 동안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미국 유학 이후의 음악활동과 디아스포라로서 조국의 독립을 염원하고 억압된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자신의 신념을 실천해 나가는 모습을 입수한 자료를 통해 분석하고 처음으로 소개한다.

임배세의 활동은 삶의 변화와 활동지를 고려하여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23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로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 받고 성악가로 활동하며 음악을 통해 서구를 경험하기 시작한 시기이다. 두 번째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을 거쳐 오벌린 대학과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에서의 수학한 시기로, 잠재되어 있던 사회 문제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세 번째는 1928년 결혼한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로 시카고와 뉴욕에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여성의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 후원자로서 물질적 지원을 한 시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방 이후로 뉴욕에서 한인 사회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로 안정(安定)하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한 시기이다.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임배세의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세 번째 시기인 해방 이전까지로 확인되며, 독창, 연주, 연설, 인터뷰, 후원, 음악모임 조직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임배세의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었던 <금지가>(禁酒歌, 1918)의 의미를 살펴보고, 새롭게 발굴한 그녀의 또 다른 작품 <나의 성경>(1938년경 추정)을 소개하며 근대 초기 한국의 음악인들에게 기독교의 영향이

지대했음을 확인한다. 임배세의 활동은 한국 근대 초기에 시대를 앞서갔던 여성음악가의 단면이지만 당시의 근대 음악문화와 여성음악인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기에 큰 의미가 있다.

주제어: 임배세, 김배세, <금주가>, <나의 성경>, 근대 여성음악가, 기독교, 음악 교육, 디아스포라, 김경

1. 들어가며

1931년 발행된 『신당찬송가』에는 영문 제목과 작곡가, 작사가가 명시된 314곡이 수록되어 있다. 대부분의 곡은 본래 있던 곡조에 가사를 새롭게 붙인 곡으로 이 중 한국인이 창작한 가사를 가진 곡은 7곡¹⁾이며, 가사와 곡조를 모두 한국인이 쓴 곡으로는 <금주가>(禁酒歌)가 유일하다. <금주가>는 임배세(林培世, 1897-1999)가 이화학당 재학 시절인 1918년에 작곡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로 인해 임배세는 한국 최초의 여성 작곡가로 언급되기도 한다. 또한 임배세는 같은 시기에 활동했던 음악가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는 유명한 성악가였다. 홍난파(洪蘭坡, 1898-1941)는 음악을 설명하는 글에서 성역(聲域)을 구분하며 임배세의 목소리를 소프라노에 해당하는 예로 들었으며²⁾ 김인식(金仁湜, 1885-1963)이 지난 음악을 술회하는 글에서 “조선에서 여성 최초로 성악을 배운 사람은 임배세”³⁾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렇듯 임배세는 한국근대음악사에서 ‘최초’의 여성작곡가이자 성악가로 언급되지만 그녀의 삶이나 음악활동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구체적으로 연구된 바가 없다. <금주가>의 작곡가이지만 그 외의 작품이 전해지지 않았고, 당대 유명한 성악가였지만 음반으로 목소리가 전해지지 않기에, 임배세는 ‘<금주가>의 작곡가’ 혹은 ‘유명한 성악가’로 단편적으로 기록되고 기억되어왔다. 따라서 본 논문은 다양한 1차 자료들을 바탕으로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임배세의 삶과 활동을 추적하여 밝히고, 사회 문화적 맥락 안에서 분석하여 근대 초기 여성음악가로서의 임배세를 새롭게 조명해

1) 한국인이 작사한 7곡의 제목은 <거룩하다 성경>, <복음의 씨>, <풍랑에서 구원함>, <예수는 우리의 생명>, <빛되신 예수>, <일허려 가세>, <금주가>이다. H. D. Apenzeller, “서문,” 『신당찬송가』 (조선야소교사회, 1931) 제1판. 문옥배, 『한국교회 음악 수용사』 (예술, 2004), 100에서 재인용.

2) 홍난파, “歌劇의 이야기,” 『開闢』 31 (1923), 29.

3) “樂壇先驅者에 讚歌-今夜에 謝恩音樂會 開催-府民館에서,” 『매일신보』, 1941.11.27.

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임배세의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 <금주가>의 의미를 살펴보고, 새롭게 발굴한 임배세의 또 다른 작품 <나의 성경>(1938년경 추정)을 본고 말미에 소개하여, 근대 초기의 기독교의 영향이 한국 근대 음악 형성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쳤는지 확인한다.

가부장적인 사회와 식민지 현실이라는 이중의 억압 속에서 음악은 조선의 여성들에게 암울한 현실의 슬픔과 고통을 달래주는 도구이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였다. 근대 초기에 활동했던 임배세의 삶은 조선에서 기독교를 통한 근대 음악 교육이 여성의 자아실현에 대한 의지와 결합되어 어떠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발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며, 기독교 신앙과 함께 한 개인이 음악을 매개로 매순간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일련의 과정을 보여준다. 본고에서 밝혀질 임배세가 무대에서 노래했던 기록과 사회의 변화를 꿈꾸며 자신의 신념을 다각도에서 끊임없이 실천했던 흔적들은 근대 초기에 활동했던 음악가의 단면이자 당시의 근대 음악문화의 모습을 함께 살펴볼 수 있기에 더욱 의미가 있다.

2. 삶의 여정

임배세는 1897년 11월 7일 강원도 원주군 원주면 상하리에서 임상재(林相在)⁴⁾와 이성세(李城世)의 1남 1녀 중 장녀로 태어났다.⁵⁾ 본명은 임을선(林乙仙)으로⁶⁾ 자신이 서울에서 출생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었을 만큼 아주

4) 임배세의 아버지인 임상재는 상동교회(尙洞教會)에서 신교육운동과 교육구국의 일환으로 1904년에 세운 청년학원(靑年學院)의 연조금을 내기도 했다. “漢城尙洞靑年學院捐助金廣告,” 『황성신문』, 1905.02.13.

5) 임배세의 출생지와 출생년도는 서울, 1900년 출생으로 알려져 있었다. 필자는 임배세의 출생 신고서를 확인하였는데, 이에 도움을 주신 임배세의 현질(賢姪), 서울 동암교회 임수완 장로님께 깊이 감사드린다.

어릴 때 지금의 서울인 경성으로 왔던 것으로 보인다. 알려진 이름이 ‘배세’인 이유는 이화학당에 입학한 이후 혹은 그 이전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베씨(Bessie)’라는 이름을 사용하면서부터일 것으로 추측된다.⁷⁾ 임배세는 이화학당의 중학과(1915년)와 대학과(1919년)를 졸업했으며⁸⁾ 재학시절부터 성악가로 무대에 섰다. 미국 유학을 가기 전까지 이화학당 대학부에서 교사로 지냈고 어머니와 함께 어릴 적부터 섬기던 정동교회 주일학교에서는 찬양을 지도하고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1920년에는 같은 시기에 활동하던 음악인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거나 음악을 연구할 목적으로 한양낙영회(漢陽樂英會)라는 모임을 조직했고, 홍에스터(洪愛施德, 1892-1975), 김활란(金活蘭, 1899-1970), 김폴린(金保麟, 1898-1996)과 함께 정동교회 여자절제회 지도자로도 활동했다. 또한 1923년에는 정동교회의 유사(有司)⁹⁾로 임명되었고, 예배위원을 지냈으며, 같은 해 6월 엘리스 아펜젤러(Alice Appenzeller, 1885-1950)와 함께 성만찬위원 2인에 선정¹⁰⁾되기도 했다.

임배세는 1923년 9월 식민지 조선을 떠나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는 한인기독교학원¹¹⁾ 교사로 초빙되어 미국으로 건너간다. 1923년 9월 19일, 한인기독교

-
- 6) 발견된 사료에서 ‘울선’이라는 이름이 단독으로 사용되었던 적은 없지만 임배세는 미국 유학시절에 자신의 이름의 의미를 영어로 ‘Fairy Bird’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 7) 임배세의 어머니도 정동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선교사로부터 ‘메리’라는 이름을 받아 ‘이메리’라고 불렸다. 정석기, 『한국 기독교 여성 인물사 3』 (쿰란출판사, 2011), 46.
 - 8)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편, 『이대인명록』 (이화여자대학교, 2004), 51. 『이화인명록』에는 1915년 대학예과 졸업이라고 되어 있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중학과를 졸업한 것이 옳다. 이화는 1917년 중학과를 대학예과로 개편하고 수업연한을 대학과와 같이 4년제로 조정했다. 함영근 엮음,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126.
 - 9) 유사는 교회의 제반 사무를 맡아보는 직무를 말한다.
 - 10) 예배는 교회의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행위였으므로 정동교회는 일찍부터 예배위원을 두어 예배준비에 힘을 쏟았다. 이 기록은 정동교회의 현재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예배위원의 기록이다.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교회 구역회록(1923.06.02.),”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2』 (정동삼문출판사, 2011), 326.

학원에서는 새로 함께 하는 교사가 소개되고 기숙사 낙성식이 개최되었지만 임배세는 이보다 조금 늦은 10월 4일에 입국하여, 7일에 이곳 기독교 예배당에서 성대한 환영을 받고 약 2년간 학생들을 가르쳤다. 음악공부에 대한 열망을 갖고 있었던 임배세는 1925년 8월 29일 하와이를 떠나 9월 4일 로스앤젤레스를 거쳐 오하이오로 갔고 오벌린 음악대학(Oberlin Conservatory)에서 공부하기 시작했다.¹²⁾ 오벌린 대학의 당시 학생기록부에는 “Lim Bessie E.”이라는 이름과 본명인 ‘임을선’의 일본식 발음의 영어표기인 “Otsusen Rin”이 함께 기재되어 있으며, 1925-1926년 동안 오벌린 음악대학의 학생으로 등록되어 있었으나 이곳에서 졸업은 하지 않았다.¹³⁾ 1927년부터는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Illinois Wesleyan University)로 옮겨가서 “Lim, Bessie Earlsun”이라는 이름으로 3학년 과정부터 공부하게 되는데¹⁴⁾ 이곳에서는 음악이 아닌 인문대학(College of Liberal Arts)을 다니며 종교교육(Religious Education)을 공부했고 학사과정을 마쳤다.¹⁵⁾

-
- 11) 이승만이 1913년 2월 대한민국민회 하와이 지방회에서 1906년부터 운영하던 한인 기숙학교(Korean Boarding School for Boys)의 학장에 취임하여 그해 9월 학원의 학제를 개편하여 한인중앙학원(Korean Central School)으로 고쳐 운영하였다. 1914년 여학생 기숙사를 설치하고, 1918년 9월 하와이 지방회의 지원을 받아 이사를 하면서, 학교 운영을 남녀공학제로 바꾸고 명칭도 ‘한인기독교학원(Korean Christian Institute)’으로 변경하였다.
 - 12) 1925년 10월 1일, 오벌린 대학이 워싱턴 D. C. 이민국(Commissioner General of Immigration)에 보낸 서신에 따르면, 임배세는 “Otsusen Rin”이라는 이름이 적힌 일본정부 발행의 일반여권을 가지고 1923년 10월 4일에 호놀룰루로 입국했다. 서신의 주 내용은 이민법상 임배세가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두 달 밖에 남지 않아 새로운 법의 적용을 받고 체류하여 오벌린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 13) 임배세는 오벌린 대학 졸업생 명부에 기록되어 있지 않다. 오벌린 대학 기록보관소(Oberlin College Archives)를 통해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임배세는 1925-26년 사이에 이 학교를 다닌 것으로 되어 있다. (오벌린 대학교 기록보관소 Louisa Hoffmann과 2017년 12월 27일자, 2018년 1월 3일자 교신)
 - 14) “New Students Come: For Second Semester,” *The Argus*, February 10, 1927.
 - 15)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Catalogue of Students, 1927-28, College of Liberal

졸업 후 1928년 말 임배세는 재미교포 사업가였던 김경(金慶, 1888-1966)¹⁶⁾과 결혼했고, 이때부터는 남편 성을 따라 김배세(Bessie Kim)로 활동했다.¹⁷⁾ 남편과 함께 한국을 몇 차례 방문하기도 했으나 대부분의 시간은 시카고에 머물면서 한인유학생모임, 시카고 부인회, 대한인국민회, 조선여자청년회를 기반으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김경의 사업이 기울어지게 되면서 1938년경 임배세는 남편과 함께 시카고를 떠났고 그 이후로는 뉴욕에서 생활했다.¹⁸⁾ 뉴욕에서도 그녀의 활동은 이어지는데, 1940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뉴욕한인음악구락부’에서 그 곳에 거주하고 있던 한인 교민들과 함께 꾸준히 음악활동을 해나갔으며, 대한인국민회에 기반을 두고 활동하며 조선으로 독립금을 보내는 등 조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독립을 위해 힘썼다.

임배세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0년대 초반 한미재단(韓美財團)에서 근무했으며¹⁹⁾, 1955년경에 뉴욕 롱 아일랜드(Long Island)의 리치몬드 힐즈

Ar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nnual Catalogue* 26/2 (1928), 122.

- 16) 김경(金慶, 1888-1966)의 본적은 평안남도 순천군 순천면 서번리, 본명은 김병준(金炳俊)으로 1914년 김경으로 개명하여 미국에서는 Bernard Kim으로 활동했다.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1912년경 시카고에 정착했고 1915년경부터 워싱턴 카페테리아(Washington Cafeteria)를 경영했고,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1934년 8월 23일 임시정부 국무회의에서 재무부 주미 제6항 재무위원으로 선임되었고, 10월 재미교포로부터 징수되는 인구세와 애국의 연금을 임시정부의 군자금으로 송금하기도 했다. 당시 조선독립운동에 매진하고 있다하여 용의(容疑)조선인으로 일제 감시를 받았다. 김경은 임배세와 결혼 전 폴란드계 미국인 부인과 두 아들을 둔 기혼자였으나 합의 이혼을 한 후 임배세와 재혼을 했다.
- 17) “Our New Alumni,”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December 1, 1928. 임배세는 김경과 결혼하여 시카고에 살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이 시기 이후에 미국에서 기록상 확인할 수 있는 이름도 Bessie Kim이나 Mrs. Kim이다. 그러나 결혼 이후 참여했던 한인연주회 프로그램에서는 임배세라는 이름이 종종 발견된다.
- 18) “김경씨 뉴욕으로 이거,” 『신한민보』, 1938.08.25. 오벌린 대학 기록보관소 기록에 따르면, 1939년 임배세의 거주지는 뉴욕 돈간가(Dongan Avenue) 플러싱 86-15번지였다.
- 19) 조종무, “뉴욕한인이야기-1950년대 한인사회 여성파워 배씨김,” 『미주 한국일보』, 2011.11.17.

(Richmond Hills)에 정착²⁰⁾하여 뉴욕한인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김경과 사별한 1966년 이후에는 대외적인 음악활동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데, 1968년부터 1982년까지 롱 아일랜드 대학교(Long Island University)의 브루클린 캠퍼스의 도서관 사서로 근무하며, 미주 지역에 이화를 후원하기 위해 독립된 기관으로 만들어진 이화국제재단(International Foundation for Ewha Womans University)에서 1970년부터 1978년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오랫동안 섬겼던 뉴욕한인중앙교회²¹⁾에서 주일성경학교 교사와 장로로 봉사했으며, 1999년 12월 15일 102세의 나이로 별세하여 17일에 교회장이 치러진 후 교회묘지인 미국 롱 아일랜드 워싱턴추모공원(Washington Memorial Park)에 안장되었다.²²⁾

3. 음악, 그리고 사회활동

임배세의 활동은 삶의 변화와 활동지를 고려하여 크게 4시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째 시기는 이화학당에서부터 1923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로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을 받고 무대를 경험하며 음악활동을 한 시기이고, 두 번째 시기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을 거쳐 오벌린 대학과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에서의 유학한 시기로 임배세의 잠재되어 있던 사회 문제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세 번째는

20) 1955년 3월 1일 기록에서는 임배세를 확인할 수 있으나, 1957년 1월 1일 기록에서는 ‘잃어버린 동창’(“Lost” Alumni)에서 “Kim, Mrs. (Bessie Lim)”이라고 언급되어 있다. “Class Note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lumni Issue*, March 1, 1955., ““Lost” Alumni,”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lumni Issue*, January 1, 1957.

21) 뉴욕한인중앙교회(The Korean Central Church of New York)는 뉴욕시에서 한인 이민 역사상 가장 유서가 깊은 장로교회이다.

22) “교회소식,” 『뉴욕한인중앙교회 소식지』, 1999.12.19.

1928년 결혼한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로 시카고와 뉴욕에서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여성의 더 나은 삶으로의 변화를 위해 후원자로서 물질적 지원을 해나갔던 시기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해방 이후로 뉴욕에서 한인 사회의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로 안정(安定)하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한 시기이다.

신문 기사, 잡지, 대학 기록, 도서관 및 아카이브 기록, 교회 관련 자료 등 당시의 1차 자료를 통해 알 수 있었던 임배세의 음악과 관련된 활동은 대부분 세 번째 시기인 해방 이전까지로 확인되며, 그 활동은 독창, 연주, 연설, 인터뷰, 후원, 음악모임 조직 등 매우 다양한 방식으로 나타난다(표 1) 참고).

[표 1] 임배세의 활동 시기 구분과 내용

시기	년도	주요 활동지	활동내용				
			독창, 연주	연설	음악 모임	인터뷰	후원
첫 번째 시기	1923년 이전	조선	✓	✓	✓	✓	-
두 번째 시기	1923년-1928년	하와이, 시카고	✓	✓	✓	✓	✓
세 번째 시기	1928년-1945년	시카고, 뉴욕	✓	✓	✓	✓	✓
네 번째 시기	1945년 이후	뉴욕	한미재단, 도서관 근무 이화국제재단 이사, 뉴욕 한인중앙교회 장로				

임배세가 받았던 교육은 한국 최초의 근대적 여성교육 기관인 이화학당과 한국에 최초로 세워진 감리교 교회 중 하나인 정동교회에서 시작하여 식민지 조선의 독립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던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 미국에서 최초로 흑인 학생을 입학시키고 여학생에게 학사학위(Bachelor's degree)를 주었던 오벌린 대학, 그리고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설립된 일

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로 이어진다. 이러한 기독교적 환경은 스스로 재능 이라고 여겼던²³⁾ 음악에 대한 소신과 강하게 결합되어 이후 모든 활동에서 중심축을 이루었다.

식민지 경험과 서구의 기독교 교육의 영향 속에서 유명한 성악가로 활동했던 임배세는 배움을 위해 조국을 떠나고, 미국 유학을 하면서 여성의 사회적 역할과 음악가의 책임에 대해 더욱 깊게 고민하게 된다. 그리고 잠재되어있던 그녀의 비판의식은 점차 발현되기 시작하며, 디아스포라로서 조국의 독립과 억압된 여성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 자신이 처한 상황 속에서 다양한 실천들을 해나간다. 이제, 이러한 활동을 사회의 변화와 다양한 관계 속에서 시기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보겠다.

1) 첫 번째 시기(1923년 이전): 조선의 유명한 성악가

임배세는 일찍이 성악가로서 무대에 올랐다고 전해진다. 이상만에 따르면, 1910년 10월 귀국한 이승만(李承晩, 1875-1965) 박사 환영음악회로 이듬해에 열린 '신춘음악회'에서 임배세는 정사인(鄭士仁, 1881-1958), 선교사와 선교사 부인, 이왕직 양악대와 한 무대에 섰다.²⁴⁾ 그가 소개한 프로그램은 “1. 밴드 이왕직 양악대 2. 플룻 독주 정사인 3. 테너독창 후커(미국인) 4. 피아노 독주 스나이더(미국인) 5. 소프라노 독창 임배세 6. 피아노 독주 하카트(미국인) 7. 밴드 이왕직 양악대”로, 임배세는 어린 나이였지만 독창자로서 무대에 설만큼 상당히 실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²⁵⁾

23) 임배세는 “사람은 누구나 세상에 태어났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 이상의 달란트를 부여받는다. 내가 천부(天父)에게 받은 달란트는 다름 아닌 ‘음악’이라는 달란트였다.”라고 말했다. 정석기, 『한국 기독교 여성 인물사 3』, 45.

24) 이상만,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본 이면사(13), 첫 洋樂 연주회,” 『경향신문』, 1986.01.18.

25) 그러나 필자는 이상만의 언급 외에 이 음악회와 프로그램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후 프로그램에서 임배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연주회는 1919년 11월 18일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YMCA) 강당에서 열린 경성악대 주최 ‘경성악대 제1회 연주회’이다.²⁶⁾ 이 연주회는 1부와 2부로 나누어져 있는데 시작과 끝을 경성악대가 맡았고, 홍영후, 빌링쓰 박사의 부인²⁷⁾, 조선 최초의 치과의사인 미국인 치과의사 한대위, 스미스 목사²⁸⁾가 음악회에 참여했다. 임배세는 이 연주회의 2부에서 이화학당 중학과와 대학과 동기인 김매영(金邁英)²⁹⁾과 함께 피아노 연탄곡인 ‘쾌활한 동작’을 연주했다³⁰⁾ ((표 2) 참고). 이유선은 『한국양악백년사』에서 “1부에 6인의 이화학생의 합창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임배세도 이들과 함께 노래했을 것으로 볼 수도 있다.”³¹⁾고 했으나, 임배세는 1919년 3월에 이화학당을 졸업³²⁾했기 때문에 이화학생 6인으로 노래에 참여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교사로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음악회에 참여하는 것을 도왔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다면, 1914년 12월 22일 오후 7시 30분에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축하대음악회(祝賀大音樂會) 2부에 있었던 이화학당 학생의 합창³³⁾과 1915년 10월 18일 오후 7시 30분에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열린 노동대간친회(勞動大懇親會)에서 있었던 이화학생 4명의 합창³⁴⁾에

26) “입장자가 오백여인, 대성황 중에 끝나쳐,” 『매일신보』, 1919.11.20.

27) 미국인 선교사로 서울 인사동 중앙예배당의 담임목사였던 빌링쓰 박사는 평양광성고보에서 일하고 연희전문학교 문과 과장을 10년간 맡 역임했으며 협성신학교 교장을 지냈다.

28) 스미스 박사는 경성미감리교회 주임이자 신학박사이다.

29) 김매영(金邁英, 1898/9-?)은 이화학당을 마치고 교사로 재직했으며, 정의여자고등보통학교에서 교수로 재직했다. 23살에 15살 연상인 평양숭실대학 교수였던 김호연(金浩然)과 결혼했다. 『매일신보』, 1921.04.19., “花開蝶舞! 鶯飛魚躍! 結婚의 好期節은 來하다,” 『동아일보』, 1921.04.18., “김호연씨의 행혼,” 『신한민보』, 1921.06.02.

30) “입장자가 오백여인, 대성황 중에 끝나쳐,” 『매일신보』, 1919.11.20.

31)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음악춘추사, 1985), 159.

32) 이화학여자대학교 기록에 따르면, 임배세는 1919년 3월 24일 대학과(제6회)를 졸업했다. 총 3명의 졸업생이 있었는데, 임배세, 김매영, 하복순이다.

33) “青年會의 降誕祭, 祝賀大音樂會,” 『매일신보』, 1914.12.14.

임배세가 이화학당의 학생으로 참여하여 음악회에서 노래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표 2] 1919년 11월 18일, '경성악대 주최 음악회' 프로그램³⁵⁾

제1회 음악연주 목차	
주최: 경성악대	장소: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 강당 (1919년 11월 18일(화) 하오 7시반)
제1부	
1. 행진곡 (코코란 사관학생) -----	경성악대(京城樂隊)
2. 6人 합창 (백합화 핀 곳으로 오라) -----	이화학생(梨花學生)
3. 4현금독주(四絃琴獨奏) -----	홍영후(洪永厚)
4. 독창(獨唱) (苦盡甘來) -----	빌링스 夫人
5. 서곡(序曲) (마리나타) -----	경성악대(京城樂隊)
제2부	
1. 원무곡(圓舞曲) 카르멘 -----	경성악대(京城樂隊)
2. 피아노 연탄(쾌활한 동작) -----	김매영(金邁英)·임배세(林培世)
3. 하모니카·피아노 합주 -----	한대위(韓大衛)
4. 독창(獨唱) (勇敢한 마음) -----	스미쓰 목사
5. 2절무곡(二節舞曲) -----	경성악대(京城樂隊)

음악만을 위한 음악회 외에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이나 행사가 있는 곳에서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흥미를 갖고 그 모임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음악회가 열리기도 했다. 한 예로, 동경에서 조선 학생들이 발행한 월간

34) “勞動大懇親會,” 『매일신보』, 1915.10.17.

35)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158-159. 음악회가 예정된 시간은 오후 7시였는데 실제로 예정보다 늦은 오후 7시 반에 열렸다. “京城樂隊의 音樂 演奏會, 십팔일밤에 청년회에서,” 『매일신보』, 1919.11.15., “京城樂隊의 演奏, 입장자가 오백여인, 대성황중에 끝나쳐,” 『매일신보』, 1919.11.20.

문예잡지 『삼광』(三光)은 1919년 12월 22일 하오 7시에 종로 중앙기독교 청년회관에서 독시회(讀詩會)를 열었다. 독시회는 조선에서는 처음 생긴 것으로 새로운 시가 낭독되었고 이를 듣기 위해 많은 청중이 모여들어 성황을 이루었다. 삼광사 주최 독시회에서는 시 낭독뿐만 아니라 작은 음악회가 있었는데, 홍영후의 바이올린 독주, 임배세의 독창, 임배세와 김매영의 합창 등이 있었다.³⁶⁾

1923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임배세가 무대에 섰던 기록을 보면(표 3) 참고), 대부분 주일학교 음악회나 기독교 모임 혹은 집회이다. 음악이 어우러진 기독교 집회의 모습에서 기독교 선교에 있어 음악이 중요한 도구였으며 집회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화학당을 비롯해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받았던 기독교 음악 교육에는 복음 전파에 가장 좋은 도구였던 음악, 즉 노래를 배우고 부르는 일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임배세는 이러한 영향아래 음악을 공부하고 많은 무대에서 서며 복음전파에 앞장섰던 것이다.

[표 3] 1923년 이전 임배세의 음악활동

날짜	장소	내용
1911년 봄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신춘음악회
1914년 12월 22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축하대음악회 2부에서 이화학생 합창
1915년 10월 18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노동대간친회 김인식 바이올린 독주와 독창, 이화학생 4인의 합창.
1919년 11월 18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경성약대 주최 음악회 이화학생 6인의 합창, 임배세와 김매영의 피아노 연탄

36) “三光社主崔 讀詩會,” 『매일신보』, 1919.12.21.

날짜	장소	내용
1919년 12월 22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삼광사 주최 독시회 홍영후 바이올린 독주, 임배세 독창, 김매영과 합창
1920년 4월 23일	세브란스 간호부양성소	간호부양성소 졸업식, 〈사랑에 주리였다〉 독창
1920년 6월 12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유년주일학교 자선음악회, 독창
1920년 6월 21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이화전도대에서 독창, 김활란 강연
1920년 7월 16일	평양 남산현 교회당	평양 청년회 주최 음악회, 〈새벽노래〉독창
1920년 8월 5일	경성악대	경성악대 주최 ‘미국흑인성악회’에서 독창, 박준재 출연
1920년 8월 30일	정동 제일교회 예배당	경성주일학교 주최 미선교사단 입경 환영회, 독창
1920년 9월 10일	이화여전 강당	악영음악회에 출연
1920년 10월 4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고학생 갑담회 추기음악연주회
1921년 5월 19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조선여자교육협회 창립 1주년 기념회 임배세 독창, 김활란 연설
1921년 6월 7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이화학당 주최 이화음악연주 윤성덕과 김활란 피아노 병주, 10인의 3부 합창, 최대이시와 김필린의 2인 합창, 김활란 저음독창, 임배세 고음독창.
1921년 9월 17일	정동 예배당	보호녀회(保護女會) 주최 음악회 김활란과 임배세 2인 합창
1921년 11월 5일	송동 예배당	경성 제1회 주일학교대회, 임배세 독창, 홍영후 바이올린 독주, 이화학당합창대 합창
1922년 2월 4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YMCA 소년부 주최 신춘음악대회, 독창
1922년 6월 22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여자고학생 상조회 발회식에서 독창
1922년 9월 25일	배재학당	보호녀회 주최, 수해구제 활동사진 겸 음악회 김활란 사회, 임배세 독창, 김인식 등 출연
1923년 2월 28일	종로 중앙 기독교 청년회관	조선여자교육협회 음악회에서 독창
1923년 5월 25일	경성공회당	인사동 중앙유치원 주최 음악연주회, 〈표류낭자〉 독창

임배세는 당시 대학예과에 다니면서 고등과 교사였던³⁷⁾ 김활란과 함께 자주 무대에 섰다. 김활란은 음악을 전공하지는 않았지만 기독교 청년회관에서 음악회가 열리면 소프라노로 독창하기도 했는데³⁸⁾ 임배세는 김활란의 강연에 이어 독창을 하거나 함께 합창을 했다. 이러한 모습은 김활란의 회고에서도 나타난다.

그(임배세)는 나보다 한반 아래였다. 그러나 우리는 大學科 때도 줄곧 붙어 다니기는 하였지만, 앞날을 그리고 조국을 걱정하는 成年이 되어서는 이런 稚氣를 이미 벗어나 있었다. 문과를 하였지만 그는 當代에 聲樂家로 名聲이 자자하였다. 그가 노래하면 모든 청중에게 감동을 주는 당당한 소프라노였다. 때로는 우리는 듀엣으로 음악회를 장식하는 경우가 있었다. 그는 소프라노, 내가 엘토, 이래서 장난꾸러기 때처럼 우리는 노래에서도 호홉이 맞았다.³⁹⁾

1919년 3·1운동 이후 농촌계몽과 기독교 복음 전파를 목적으로 김활란이 주축이 되어 만들어진 이화전도대(梨花傳道隊)⁴⁰⁾는 1920년 6월 21일에 발족식을 열었다. 이때 임배세는 이화합창반의 특송과 함께 무대에 올랐다. 당시 모임의 참석자들은 20대 전후의 젊은 여성들이었고, 이화전도대는 민족의 영적 구원과 신앙을 통한 민족의 대각성을 도모하며 약 한 달 동안 평양, 신의주, 만주, 광산, 정주, 북진, 양시, 차련관, 강서 등을 순회하며 전도 강연회를 개최했다. 일제의 감시와 방해 속에서도 조선에서는 독

37) 대학과 졸업생이 본격적으로 배출되기 이전에는 학생교사 역할이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대가로 학비를 전액 혹은 일부 면제받으면서 대학과 과정을 이수했다. 함흥근 엮음, 『이화100년사』, 131.

38)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124.

39) 김활란, “나의 師友錄: 소꿉동무 林培世와 귀엽·매영,” 『경향신문』, 1967.11.01.

40) 1920년 6월에 조직되었으며 홍에스더, 김합라(金含羅), 윤성덕(尹聖德), 김폴린, 김애은(金愛恩), 김신도(金信道)가 주축이었고, 김활란이 지도교사 겸 전도대장을 맡았다.

립을 위한 많은 집회들이 열렸는데, 민중의 마음을 움직이고자 했던 호소 짙은 강연들은 늘 음악과 함께 준비되었다. 이 중에서도 여성으로서 완전한 자아를 찾고 자기실현을 강조했던 김활란은 여러 무대에서 임배세와 함께 섰으며 임배세의 노래는 민중과 여성을 향한 호소로서 여성운동에 힘을 보탤다. 임배세가 올랐던 무대는 음악이 조선의 억압받는 여성들에게 교육을 통해서 자신을 표출하고 인식하게 할 수 있는 하나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었고, 음악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며 민족적 연대의 필요성을 촉구해나가는 음악인이자 여성지식인의 본보기가 되었다.

특히 이 시기는 기독교의 복음 전파의 영향력이 한 세대에만 머무르지 않고 후대에 지속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음악을 통한 교육이 필수적이라는 사고가 점차 확산되어 가던 때이며, 이 과정에서 여성이 가정 안팎에서 매개자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이 인식되기 시작한 때였다. 당시 많은 지식인들이 나라의 미래를 이끄는 자녀들을 교육함에 있어 여성이 중요한 존재이라고 피력하며 여자 교육을 강조했다는데, 이는 임배세가 이화학당 교사였던 1921년 『동아일보』에 실렸던 “新進女流의 氣焰, 음악과 인생의 관계”라는 글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음악을 조선사회에는 어떻게 발전시키겠는가. 이것은 별도리 없고 먼저 소학교 교사가 음악의 취미를 **아이 때부터** 길러줄 것이다. 어린 아이 때에 가장 그의 특징이 잘 나타나니 어릴 때에 음악에 특징 있는 아이를 끌어서 음악을 배우게 할 것이다. 둘째는 청년 중에 음악구락부 같은 것을 조직하여 음악을 연구하는 것도 좋고, 셋째는 사회의 일반인사가 음악의 취미를 이해하여 때때로 음악회를 여는 것도 좋을 것이다. 마지막에 할 것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주를 주시어 그로 말미암아 기쁘게 하셨다. 우리는 그를 잘 받아 즐겨워 할 것이다. 조선에는 조선우리의 음악뿐 아니라 이삼십년 전에 서양음악이 수입되어 씨를 뿌리기 시작하였다. 이제 그 씨는

씩이 트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 부활의 조선에 새로운 큰 음악가가
나고 우리 사회도 봄바람이 부는 일이 되기를 바란다.⁴¹⁾

위의 글에서 임배세는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강조하며 음악이 사람의 생활에서 상황에 따라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고, 이러한 관계는 조선의 역사 속에서 문화로 남아있다고 했다. 그리고 음악이 개인에게 끼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음악과 가정, 음악과 사회, 음악과 나라와의 관계에 대해 언급하면서,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음악 교육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소학교 교사는 어린아이의 음악취미를 길러주고, 청년들은 음악구락부 같은 것을 조직해서 음악을 연구하고 음악회를 열 것을 제안한다.

1911년에 이화학당의 교사로 부임했던 선교사 하몬(Grace Harmon MaGary)은 음악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에게 음악가 전기와 음악사를 읽도록 권장했고, 가능한 한 학생들이 음악계에서 일어나는 행위들에 대한 지식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⁴²⁾ 1912년 이화학당이 대학과 시기에 이르면서 교사 양상 훈련 및 음악사가 교육 내용에 포함되었는데, 실기 교육과 함께 음악이론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었던 이화학당의 교육은 임배세에게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그녀는 “서양에서는 어떠한 집회든지 음악은 반드시 있다.”고 말하면서 음악이 사회에 가지는 영향력과 그 역할을 강조했다.⁴³⁾ 이는 이화학당에서의 교육을 통해 이미 서양의 상황에 대해 아는 바가 있었으며 음악이 사회에 끼칠 수 있는 긍정적인 모습을 본받고자 했

41) “新進女流의 氣焰, 음악과 인생의 관계,” 『동아일보』, 1921.02.25. 굵게 표시된 부분은 원문에서 강조된 부분이다. 제목과 함께 “음악은 사람의 생활에 위로와 용기를 주는 것”, “梨花學堂教師 林培世嬢 談”라고 밝히고 있다.

42) Mrs. E. M. McGary, “Music in the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03-105.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나남출판사, 2003), 56에서 재인용.

43) “新進女流의 氣焰, 음악과 인생의 관계,” 『동아일보』, 1921.02.25.

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임배세는 한양낙영회와 같은 음악모임을 통해 음악이 사회의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앞장서기도 했다. 한양낙영회는 경성악대 군악대원이었던 백우용을 회장으로, 임배세를 비롯해 선교사였던 구로브(高路芙, Paul L. Grove), 음악애호가였던 최동준(崔東俊), 작곡가 박태준(朴泰俊, 1900-1986)의 형으로 김영환에게 음악지도를 받고 성악가로도 활동했던 박태원(朴泰元, 1897-1921) 등 기독교계 음악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1920년 6월 25일에 조직되었다. 음악과 기독교 정신이 구심점이었던 이 모임은 매월 한 번 씩 이화학당에 모여 예술에 대한 취미를 보급시키겠다는 목적을 가지고 음악에 대한 지식을 연마하며 명사를 초빙하여 세미나를 가졌다. 낙영회가 언제까지 어떻게 유지가 되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규모나 참여자, 월별 모임, 입회 절차 등의 기록으로 볼 때 상당히 전문적으로 운영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⁴⁴⁾

임배세는 성악가로서 동시대 음악인들과 함께 많은 무대에 섰으며, 음악회에서뿐만 아니라 많은 강연과 음악 모임을 통해 당시 지식인들과도 교류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이러한 경험들은 임배세로 하여금 식민지적 현실과 억압받는 여성에 대해 인식하고 공감하게 함으로써 성악가였던 임배세가 자신의 진로와 미래에 대해 고민하여 이후의 활동과 삶의 방향을

44) 한양낙영회는 1920년 9월 10일 오후 8시 정동에 이화학당 안에서 제1회 음악회를 열고 회원을 모집했다. 회원은 준회원, 정회원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정회원이 되기 위해서는 음악에 한 가지 뛰어난 점이 있거나 악기를 가진 사람이어야 하며 준회원은 약간의 소양이 있고 취미만 있으면 입회가 허가되었다. 초기 입회금은 일원이고 연금(年金) 일원이었다. 한양낙영회는 연주뿐만 아니라 음악적인 지식을 공유하는 일종의 세미나 같은 형태를 운영하였으며, 일반인들에게 음악의 취미를 보급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다 1921년 조직의 주축 회원이었던 선교사 구로브가 미국으로 돌아간 이후 회의 확장을 위해 회원들을 다시 모집한다. 1921년 5월 17일에는 배재학당 내에 아펜젤라의 집에서 남녀 회원이 모이는 월례회를 갖고 간단한 음악연주와 강연을 열기도 했다. “漢陽樂英會組織,” 『동아일보』, 1920.06.28., “樂英會演奏會 회원모집차로 무료공개,” 『동아일보』, 1920.09.09., “樂英會擴張計劃 회원을 새로히 모집,” 『동아일보』, 1921.05.16.

결정함에 있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임배세는 교육을 통해 개인이 음악을 통해서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리라는 믿음며, 음악과 가정, 음악과 사회, 음악과 나라와의 관계를 인식하고 있었다.

2) 두 번째 시기(1923년-1928년): 미국 유학과 사회 문제의식의 발현

하와이 호놀룰루에 있던 한인기독교학원은 이승만이 근대교육을 위한 구국활동을 하며 기독교 지향의 교육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정체성 확보, 리더십 양성, 사회교육 활성화라는 지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었다. 이화학당의 교사였던 임배세는 1923년 9월 한인기독교학원에 교사로 초빙되어 미국으로 건너갔고⁴⁵⁾ 그곳에서 약 2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며, 한인교회 반주자와 성가대 지휘자로 활동했다. 1925년 당시 한인기독교학원의 재무 겸 학감이었던 임배세는 오벌린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1925년 8월 8일자 『동아일보』에 한인기독교학원 기숙사의 모습과 함께 이 소식이 전해진다.

나는 여자인 까닭에 여자 교육에 자연이 더욱 주의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일후에 공부를 마치고 귀국한 후에도 여자 교육에 몸을 바치기가 소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의 여자 교육이 미미한 것을 생각하면 실로 애석합니다. 언젠쯤이면 우리 사회에도 여자의 교육이 완전히 실시되고 따라서 여자의 지위가 향상될는지요, 그런 것을 생각하면 실로 하루가 바쁘습니다. 내가 음악을 배우는 본의는 다름 아니라 저급한 취미에 빠져있는 우리 사회에 고상한 감정생활을 주기 위함입니다. (중략) ...떨어진 사회를 구원하는 방법의 하나가 곧 고상한 음악을 주는 것이요, 그렇게 하여 화락하고 유쾌한 기운이 없던 사회에 산 기운을 주는 것이 음악가의 책임인 줄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중대한 책임의

45) “하와이,” 『신한민보』, 1923.10.25.

만분의 일이라도 말아보려고 일생을 음악 연구에 바치려고 합니다. 가을에 오벌린 대학 음악부에 입학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고, 그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귀국하여 나는 정성껏 우리 사회를 위해 일하고자 합니다.⁴⁶⁾

임배세는 자신이 음악을 하는 것에 대한 뚜렷한 목적을 밝히면서 배움을 교회와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을 하며 동시에 이것이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한다. 그리고 유학 전에 많은 무대에서 노래했던 것과 음악을 계속 공부하는 것은 더 배우기 위함이며 음악을 통해서 사회에 환원하고 음악을 통해 변화를 추구하고 싶었던 큰 뜻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고백한다. 3·1운동 이후 고조된 한인들의 교육열과 조선총독부의 해외유학에 대한 개방정책으로 인해 1920년대에 미국 유학은 이전에 비해 증가했지만 실제로는 수가 그리 많지 않았다.⁴⁷⁾ 식민지 시대에 미국 유학생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층이었고, 수는 적었지만 이후 식민지 조선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임배세는 오벌린 음악대학에 입학했으나 이곳에서 졸업은 하지 않았고, 1927년부터는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로 옮겨 인문대학에서 종교교육을 3학년 과정부터 공부했다.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 학생명부를 통해 당시의 이름, 소속과 학년, 출신지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1927년 기록에는 “Lim, Bessie Earlsun / Lib. A. Jr. / Honolulu, Hawaii”로, 1928년 기록에는 “Lim, E. Bessie / L. A. Sr / Seoul, Korea”로 출신지가 변경되어 기록되어 있다⁴⁸⁾([사진 1] 참고).

46)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 『동아일보』, 1925.08.08.

47) 유학생 총회에서 발행한 기관지 『우라키』(The Rocky) 2 (北美學生總會, 1926)에 따르면, 1925년 전공별 미국 유학생의 수 사회과학 56명, 공학 24명, 의학 23명, 자연과학 23명, 신학 22명, 인문학 18명, 예체능 14명, 농학 1명 총 181명이다. 홍선표, “일제하 미국유학연구,” 『국사관논총』 96 (2001), 167에서 재인용.

48)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General Catalogue of Studen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nnual Catalogue* 25/2 (1927), 149.,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사진 1) 임배세의 이름이 적힌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 학생명부
(1927년과 1928년)

년도	이름	소속과 학년	출신지
1927년	Lim, Bessie Earlsun.....	Lib. A. Jr.	Honolulu, Hawaii
1928년	Lim, E. Bessie.....	L. A. Sr.	Seoul, Korea

오벌린 대학에서 음악을 공부하던 임배세가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로 옮기면서 종교교육으로 전공을 바꾼 이유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측을 해볼 수 있다. 첫째로 식민지 시기 초창기 근대 교육 과정 속에서 그녀가 접한 음악은 매우 한정적이었을 것이다. 교육을 통해 임배세가 접할 수 있었던 음악은 기독교 전파를 위한 교육의 도구였기 때문에, 서구의 음악을 접할 수는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적 배우기 쉬운 찬송가이거나 쉬운 선율을 가진 노래, 그리고 기초적인 이론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오벌린 대학에 입학 한 후, 음악을 전공함에 있어 다소 한계에 부딪혔을 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 이유는 신앙이 바탕이 된 임배세의 개인적인 판단으로, 생전의 몇몇 인터뷰를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다. 임배세에게 음악은 늘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전제로 그 위에서 존재하는 것이었으며, 자신은 음악에 재능을 가진 한 명의 기독교인으로 사회에 쓰임이 되고자 했다. 즉, 한 개인으로서의 음악적 성공보다는 식민지 조선에서 배움을 통해 생겨났던 종교적 신념이 미국에서 학업을 이어나가는 과정에서 더 강하게 발현되었으며, 임배세에게 음악은 더 이상 배움의 목적이 아닌 배움의 사회적 환원을 위한 도구라는 인식이 더욱 확고해졌던 것이다.

임배세는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에서 종교교육을 전공하면서도 성악가로 무대에 서기도 했다. 학생신문인 『아르구스』(The Argus)⁴⁹⁾의 1928년

“General Catalogue of Studen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nnual Catalogue* 26/2 (1928), 136.

3월 15일자에 따르면, 임배세가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연합감리교회(The First Methodist Church)에서 엠마 루이즈 애쉬포드(Emma Louise Ashford, 1850-1930)의 <나의 임무>(My Task), 프랭크 라 포취(Frank La Forge, 1879-1953)의 <작은 별>(Little Star), 랜돈 로널드(Landon Ronald, 1873-1938)의 《인생》(Cycle of Life) 중 <전주곡>(Prelude) 총 3곡을 독창했다는 기록이 있다(사진 2) 참고). 그러나 임배세는 성악을 전공하는 학생이 아니었고 성악전공생 명부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다. 다만 오늘날과 같은 복수전공 시스템은 없었지만 당시 음악대학 교수들이 자신들의 연습실에서 전공생뿐만 아니라 비전공생들에게 개인적인 교습을 해주었기 때문에⁵⁰⁾ 임배세가 성악을 꾸준히 공부할 수 있었으리라 짐작된다.

[사진 2] 『아르구스』(1928.03.15.)에 실린 임배세 관련기사⁵¹⁾

Miss Bessie Lim of Korea, who is a voice student in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School of Music, sang three solos for the First Methodist church on Sunday evening. Her numbers were:
My Task - - - - Ashford
Little Star - - - - La Forge
Prelude from Cycle of Life - Ronald

이 시기 임배세는 시카고 유학생 모임을 중심으로 활동했다. 『우라키』(The Rocky)는 1927년에 3호 발행을 위한 재정마련 음악회와 연극회를 개최하는데, 임배세는 손진실(孫眞實)⁵²⁾, 윤성덕(尹聖德), 현제명(玄濟明,

49) 『아르구스』(The Argus)는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의 학생신문으로 1894년에 창간되었는데, 중요한 행사나 사건 등을 조사하여 알리거나 개인적인 의견 혹은 대학생생활에 있어 공유하고 싶은 내용들이 주로 실렸다.

50)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의 대학 기록보관 담당자이자 특별자료 담당 사서인 Meg Miner의 견해. (2018년 1월 27일 교신)

51) “Miss Bessie Lim of Korea,” *The Argus*, March 15, 1928.

1903-1960)과 함께 무대에 섰다.⁵³⁾ 또한 1927년 7월 27일부터 8월 8일까지 일리노이에서 열렸던 국제 YWCA 컨퍼런스의 세계연대회의(The World Fellowship meeting)에서 기도자로 참석하기도 했다.⁵⁴⁾

이 시기에 있었던 꽤 흥미로운 사실은 『아르구스』에 한국의 음악학교 상황과 임배세가 이화에서 받은 교육에 대한 기사가 두 번에 걸쳐 크게 소개되었다는 것이다. 한 번은 임배세의 인터뷰 형식으로 “임배세 양의 한국에 대한 흥미로운 얘기들”(Miss Bessie Lim Gives Interesting Details of Life in Korea)⁵⁵⁾이라는 제목으로 1927년 11월에 실렸고(사진 3) 참고), 또한 번은 이듬해인 1928년 2월에 한국으로 파견된 여성 선교사 모네타 트록셀(Moneta J. Troxel)의 편지 형태⁵⁶⁾로 실렸다. 이 두 기사에서 이화학당은 한국에서 온 학생인 임배세가 공부했던 곳이라고 소개되었다.

52) 정동교회 제4대 담임목사이자 상해 임시정부 의정원의장을 지낸 독립운동가 손정도 목사의 딸로 윤치호의 이복동생인 윤치창(尹致昌, 1899-1973)과 시카고에서 혼인했다. 시카고 한인교회 학생회 사교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했다.

53) 『우라키』(The Rocky)는 최초 북미 유학생 기관지로 ‘로키 산맥’과 같은 기상을 갖자는 취지에서 ‘Rocky’의 우리말 발음의 이름으로, 1925년 9월 창간되어 불규칙하게 발행되었다. 발행 횟수를 늘리고자 재정충당을 위해 시카고를 중심으로 음악회와 연극회를 개최했는데 1927년 9월 8일(목요일) 오후 8시 시카고 시내의 세인트 제임스 미감리교 예배당에서 열렸다. “쉬카고 학생 총회,” 『신한민보』, 1927.09.01.

54) “Y. W. C. A. Meeting,” *The Argus*, October 13, 1927.

55) “Miss Bessie Lim Gives Interesting Details of Life in Korea,” *The Argus*, November 10, 1927.

56) 이 기사는 여성 선교사 모네타 트록셀의 편지로 1927년 8월 25일에 쓰여 1928년 2월에 소개되었다. 기사는 “웨슬리언에서 동양과 서양이 만나다”(When East Meets West at Wesleyan)라는 제목으로 “이화의 모습”(Picture of Ewha), “이화의 학생들”(The Students of Ewha), “이화의 결실”(Some Results of Ewha), “조선 엿보기”(A Peep at the Country), “여성과 사제”(Women and Priests)라는 소제목과 함께 기술되어 있다. “When East Meets West at Wesleyan,” *The Argus*, February 16, 1928.

(사진 3) 『아르구스』 (1927.11.10.)에 실린 임배세 관련기사 일부



임배세의 인터뷰에는 이화학당의 모습과 당시의 음악환경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국57)에서 음악을 배울 수 있었던 시설은 매우 열악했고 피아노의 비싼 가격 때문에 쉽게 살 수 없었으며, 자신이 교회에서 오르간을 연주하기 시작하면서 음악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한다. 시설은 열악했고 각각 40분의 연습시간만 주어졌기 때문에 밤에 혼자 램프를 켜고 사람이 없는 강당을 지나 음악실로 가서 완벽해질 때까지 연습을 했다고 하면서 당시 이화에서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한다. 또한 조선의 일제치하의 상황 때문에 학생들은 일어, 영어, 한자 등 언어를 능숙하게 할 수 밖에 없었는데, 한자를 습득하여 중국 철학과 고전을 접할 수 있었고 이 때문에 이화의 학생들은 영어와 중국철학을 가장 좋아했었다고 했다. 임배세는 대학부에 다니면서 고등부에서 영어를 가르쳤는데, 영어권 국가에 가 본 적이 없는 상태에서 가르치다보니 영어의 사용이 무척 달랐다고 회고하면

57) 기사에서 ‘Korea’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Miss Bessie Lim Gives Interesting Details of Life in Korea,” *The Argus*, November 10, 1927.

서, 식민지 조선에서 영어를 배우는 것에는 어려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여성이 낯선 나라에 가는 것은 무척 까다롭고 비용도 많이 들었다고 했다.

임배세는 즐거웠던 이화에서의 모습⁵⁸⁾을 묘사하지만, 조선의 슬픈 상황을 떠올리며 고국을 걱정하기도 한다. 조선의 독립된 여성과 일제에 맞서 나라를 위해 싸우는 여성의 모습을 잔다르크에 비유하면서, 일제의 침략과 전쟁을 언급하고⁵⁹⁾ 이에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임배세는 이 인터뷰를 하는 동안 한복과 이화의 개교일인 5월 마지막 날의 축제모습이 담긴 사진을 보여주었다고 하며, 자신은 지난 10년 동안 더 나은 교육을 위해서 노력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선의 젊은이들은 남성뿐만이 아니라 여성들도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원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미국에서의 교육을 마치면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그 곳에서 한 사람의 국민이 되어 자유에 대한 개념을 깨닫도록 다른 이들을 돕고 싶고, 특히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을 돕고 싶다고 밝혔다.

임배세는 러디어드 키플링(Rudyard Kipling, 1865-1936)의 시 <숙녀들>(The Ladies)의 마지막 부분인 “The Colonel’s lady and Judy O’Grady are sisters under the skin!”을 인용하기도 했다. 사회적 계층이나 처지와는 상관 없이 모든 여성들은 동등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이 시구에 덧붙여, 임배

58) 이화의 학생들은 토요일이면 산에 가서 하이킹하기를 좋아하고, 가끔 점심도 식사를 싸갔다고 한다. 동들 무렵엔 멀고 안개 낀 것 같지만, 해가 높게 솟으면 색은 보랏빛으로 변하고 파랗게 변했다가 아름다운 청회색이 된다고 표현했다. 그리고 겨울이 되면 꼭대기가 하얗게 덮인다고 회상했다. 이화의 여학생들은 미국학생들과 마찬가지로 게임을 했고, 테니스와 농구를 가장 좋아했다고 말한다. 서울의 한 공립학교와 함께 토너먼트 경기를 하여 두 번째 경기에서 우승을 했는데, 임배세도 그 곳에 있었다고 했다. “Miss Bessie Lim Gives Interesting Details of Life in Korea,” *The Argus*, November 10, 1927.

59) 오랜 세월의 억압 후, 일본인들은 조선이라는 작은 나라에 군대를 보냈으며 이로써 서울은 영망이 되었다. 한국인들은 국기를 사용할 수 없고, 용감한 여학생이 흔들었을 때 일본인들이 칼을 휘둘러 팔이 잘려나갔으며, 나머지 팔로 국기를 흔들었으나 나머지 팔마저도 잘려나갔다. “Miss Bessie Lim Gives Interesting Details of Life in Korea,” *The Argus*, November 10, 1927.

세는 한국의 여성들은 아주 얌전하지만 지금은 이상을 추구하기 위해 그리고 되고자 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나는 우리 민족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임배세는 식민지 조선의 어려운 상황과 그 속에서도 교육받고자 하는 조선의 여성들의 모습에 대해 적극적으로 알려려 했으며, 이에 자긍심을 가지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변화를 이룰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3) 세 번째 시기(1928년-1945년): 디아스포라, 조선의 독립과 여성을 위한 실천

1928년 6월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를 졸업하고 그해 말 김경과 결혼한 임배세는 1929년 1월 28일 맹장염으로 병원에 입원하여 응급수술을 받는다.⁶⁰⁾ 완쾌한 이후 시카고 부인회 부회장을 맡으며 조선 여자 기독교청년회(YWCA) 후원에 적극 힘썼다. 당시 조선 여자 기독교청년회는 사회적 제약을 극복하고 일반 신진 여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이혼, 연애, 종교 사상 문제, 소년소녀 문제 등 폭 넓고 다양한 문제들을 다루고, 자선사업을 위한 모금운동을 하고 있었다. 이러한 취지에 동참하여 임배세는 매달 5달러씩 한국으로 기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⁶¹⁾

결혼 이후에 임배세는 대부분 시카고에 머물면서, 시카고 학생회에서 흥난파, 김폴린과 함께 사교부에서 활동했고⁶²⁾ 선교와 복음과 구국운동에 앞장서며 대한인국민회 시카고 지방회의 서기를 맡기도 했다.⁶³⁾ 유학생 모임과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시카고 한인 교회당에서 있었던 모임이

60) “김경씨 부인 입원,” 『신한민보』, 1929.02.07., “김경씨 부인이 퇴원하여,” 『신한민보』, 1929.02.21.

61) “김윤량 여성 인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신한민보』, 1929.08.08.

62) “시카고 학생회,” 『신한민보』, 1932.04.07.

63) “국민회총회 대의원회,” 『신한민보』, 1931.01.22.

나 행사에서 임배세는 무대에 올랐으며, 대한민국민회 23주년 창립기념식 3부 연극회에서 김폴린과 함께 합창을 하는 등 지속적으로 무대에 섰다⁶⁴⁾ ((표 4) 참고). 임배세는 잠시 조선을 방문했을 때도 무대에 섰다. 1929년 9월 조선을 방문하여 약 3개월을 머물다 1930년 1월 미국으로 돌아갔는데⁶⁵⁾ 1929년 11월 29일 오후 7시 30분 장곡천정 공회당에서 열린 ‘연전(延傳)음악대회’⁶⁶⁾에 출연하여 헤르만 뢰르(Hermann Löhr, 1871-1943)의 <내 마음에 薔薇花>(Rose of My Heart)와 프란티šek 드르들라(František A. Drdla, 1868-1944)의 <한 瓶 薔薇花>(One Faded Rose)⁶⁷⁾를 독창했다.

64) “국민회창립기념식,” 『신한민보』, 1932.02.11.

65) 1929년 9월 11일 귀국해서 1930년 1월 2일 미국으로 돌아갔고 1월 10일에 시카고에 도착했다. 한인사회에서는 김경과 임배세를 위한 환영회가 있었으며, 고국 방문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김경은 “나는 이번 본국을 방문하고 큰 낙관과 용기와 희망을 가득히 싣고 돌아왔으며 또한 미국 상업계에 소개할만한 한국 상품을 좀 가지고 왔다.”고 하며, “한국의 공업품이 매우 우수하기 때문에 한미 무역에 대해 더욱 힘써 보고자 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경씨와 동부인 十一日 귀국,” 『신한민보』, 1929.09.12., “김경씨와 동부인의 소식,” 『신한민보』, 1930.01.16., “김경씨 동부인 시카고에 안착,” 『신한민보』, 1930.01.23.

66) “대성황으로 마친 연전음악대회,” 『동아일보』, 1929.12.01. 이 기사에는 연전음악부 주최와 동아일보 학예부 후원으로 제1회 ‘연전추계음악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대성황으로 마쳤다고 기록되어 있다.

67) 임배세가 부른 것으로 확인할 수 있는 두 곡의 작곡가는 각각 ‘로어’와 ‘드르들라’이지만, 작곡가의 본명을 고려하여, 뢰르, 드르들라로 수정한다. 프란티šek 드르들라의 곡 중에는 <한 瓶의 薔薇花>의 원어에 해당하는 곡명을 찾을 수 없었는데, 드르들라의 곡 중 1904년 라이프치히에서 출판되었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곡인 <추억>(Souvenir)이 1925년에 <시든 장미 한 송이>(One Faded Rose)라는 제목의 성악곡으로 미국에서 출판된 사실이 있어, 임배세가 이 곡을 부른 것이라 추측된다.

[표 4] 1928년 이후 시카고에서의 활동

날짜	성격	장소	내용
1929년 11월 29일	독창	장곡천정 공회당	연전(延傳)음악대회 제1부에서 피르의 <내 마음에 장미화> 제2부에서 드르들라의 <한 병 장미화>
1930년 2월 20일	독창	시카고 대한민국민회 기념식	독창
1930년 6월 26일	후원	-	중서부학생회 년회 1달러 기부
1931년 1월 8일자	축전	-	대한민국민회 총회 선거결과, 김경과 함께 축전
1931년 1월 9일	연설, 독창	북미 선교대회	조선에 대한 연설과 독창
1931년 6월 17일	독창	한인 교회당	북미 대한인유학생총회 중서부대회 임배세 독창
1931년 6월 24일	듀엣	시카고 한인 교회당	에벳 청년회 주최, 임배세, 라수사나 듀엣
1931년 7월 4일	독창	시카고 카페테리아	김성수씨 환영, 환영가 부름
1931년 7월 16일	후원	-	충무공을 위한 성금 1원
1931년 12월 31일	합창	시카고 한인 교회당	대한민국민회 시카고 지방회 3부에서 김폴린과 합창
1932년 1월 2일	합창	시카고 한인 교회당	김폴린과 함께 합창
1932년 6월 26일	독창	시카고 한인 교회당	제14회 유학생대회에서 셋째날에 특별찬송
1932년 8월 21일	축사	시카고	김명선 의학박사 축하 겸 전별회에서 축사와 말씀
1933년 1월 21일	연주	한인교회 대강당	"윤이양 의사 추도회"에서 피아노 연주
1933년 2월 11일	독창	시카고 국제회관	시카고 학생회, 국민회, 흥사단 연합 강영승 박사 환영회에서 '사비수 노래' 독창

임배세는 조선의 상황과 여성들의 음악 교육을 늘 염두에 두고 있었고 이를 알리려 노력했다. 1931년에는 1월 9일 시카고에서 열린 북미 선교대회에 엘리스 아펜젤러와 함께 참석하여 조선에 대해 연설하고 독창을 했으며, 조선과 관련된 음악가나 인사들이 시카고를 방문했을 때 자신의 사택에 머물게 해주고 보살펴 주기도 했다. 음악회뿐만 아니라 조선 여자 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후원을 통해서 학생들과 여성들의 애로사항들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1929년 김경과 함께 잠시 한국에 머무는 동안 실렸던 다음의 인터뷰 기사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임배세: 한 달에 한번이나 혹은 두 번씩 부인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하는 일은 친목과 구제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흔히 혼자 있는 조선 남자들을 청해서 즐거이 놀 수 있도록 해드리기도 하고 또 남녀 중에 병이 나서 실직(失職)한 사람을 위하여 돈을 모아서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기 자: 음악은 그대로 계속하셨습니까?

임배세: 네! 그것만은 지금도 틈을 타서 연구하고 있습니다.

기 자: 조선서는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실 생각이십니까

임배세: 미스터 김께서 미국에다 벌여놓은 일(장사)이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다시 그리로 갈 것입니다. 이번에 온 것은 고국방문이고 아직 永住할 생각은 아니하였습니다. 적어도 4-5년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은 거의 끝났다. 여사는 잠깐 후에 이러한 말을 하였다.

임배세: 제 말이 꼭 부자연스러운 것이 많지요. 주의해서 하노라고 합니다만 이따금씩 서양 악센트가 섞여지는 것 같아서요, 미스터 김과 저는 언제라도 조국의 말만은 꼭 정확한 발음과 문법으로 하자고 서로 약속하였습니다.

발음을 듣고 기자는 그들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든든한 보도로 나갈 수 있을 것을 엿보았다. 유쾌하고 ‘합’스러운 그의 앞을 떠나기

가 싫을 만큼 여사는 사람을 끄는 힘이 있었다.

『중외일보』(석간, 1929.11.30.)에 실린
임배세의 인터뷰 기사 일부⁶⁸⁾

임배세의 남편 김경은 미국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1904년 미국으로 건너가 1912년경 시카고에 정착했고 1915년부터 워싱턴 카페테리아⁶⁹⁾를 운영하고 있었다. 당시 미국으로 건너간 조선인들이 식당 사업으로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곤 했는데, 김경을 비롯한 많은 교민들이 자치 및 단합을 도모하고 독립운동 자금을 모아 임시정부를 비롯한 독립운동 단체를 지원했다. 김구는 『백범일지』에서 “시카고에 있는 김경은 그곳 공동회에서 모은 것이라며 1920년대 말 집세나 하라고 미화 2백 달러를 보내어왔다. 당시 임시정부의 형편으로는 이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니었다. 돈도 돈이려니와 동포들의 정성이 고마웠다. 김경은 나와는 일면식도 없는 사람이었다.”⁷⁰⁾라고 기록하고 있다. 이밖에도 김경은 임배세와 함께 1932년 조선 여자 교육을 위해 3백원을 조선에 기부했다.⁷¹⁾ 임배세와 김경은 조선의 독립을 함께 염원하며 후원이나 기부를 통한 독립자금을 마련하는데 앞장섰고 임배세도 자신의 이름으로 꾸준히 조선으로 독립금을 보냈다.⁷²⁾

68) “금의로 환향한 림배세 녀사를 차자서,” 『중외일보』, 석간, 1929.11.30. 이 기사에서는 임배세가 이화학당에 입학하여 고국을 떠나 하와이를 거쳐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에 입학한 인물이며 김경을 만나 결혼했다고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다. 이 내용은 임배세의 사진과 함께 문답형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69) 1930년경 워싱턴 카페테리아는 167 W. Washington가에 위치하고 있었고 사업 17년차 주식회사로, 총자본 3만불, 총수입 13만 2천 5백 54불이었다.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 『신한민보』, 1931.02.12.

70) 김구 /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5), 320. 당시 미화 2백달러를 현재 돈으로 가치를 환산해보면 약5천만원이다.

71) “아펜젤라양 환영회,” 『신한민보』, 1931.01.29. 당시 3백원을 현재 돈으로 가치를 환산해보면 약3천만원이다.

72) “독립금,” 『신한민보』, 1942.02.26. 임배세 5원., “독립금,” 『신한민보』, 1942.04.02. 임배세 5원., “독립금,” 『신한민보』, 1942.06.18. 김경 10원, 임배세 5원.

[사진 4] 임배세와 김경⁷³⁾

임배세가 김경과 함께 조선의 독립을 위해 애쓴 흔적은 다른 사료를 통해서도 찾아볼 수 있다. 미주 한인사회의 유력한 지도자 중 한 명이었던 강영소(姜永韶, 1886-1934)⁷⁴⁾가 1917년 샌프란시스코에서 시카고로 거처를 옮길 때 김경이 도움을 주었는데, 강영소는 1922년 후반 시카고에서 로렌스 카페테리아(Lawrence Cafeteria Co.)⁷⁵⁾를 열었지만, 건강이 악화되고 파산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때 김경이 동업형태로 자본을 투자하여 1933년 2월 다시 문을 열어 잠시 운영했으며, 당시 여러 개의 카페테리아를 운영하고 있던 김경은 강영소가 세상을 떠나고 난후 이를 맡았고, 임배세

73) 임수완 장로님의 소장 사진.

74) 강영소(姜永韶, 1886-1934)는 미주지역 독립운동의 대표적 지도자로 도산 안창호와 함께 1913년 흥사단 창단에 앞장섰다. 1905년 아버지 강명화를 따라 도미했으며 기독교 신앙생활을 하며 시카고 한인교회 창립에도 큰 몫을 담당했다.

75)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 『신한민보』, 1931.02.12.

는 김경과 함께 로렌스 카페테리아를 운영했다.⁷⁶⁾ 당시 미국에서 한인들이 운영하던 다수의 카페테리아에서 발생하는 수익들은 생계를 위한 수단이자 상당수가 조선의 독립자금의 출처였기 때문에, 카페테리아는 독립운동과 연결된 중요한 장소였고 한 곳이라도 더 유지하기 위해 로렌스 카페테리아를 인수한 김경과 함께 카페테리아를 운영했던 임배세 역시 독립운동과 깊게 연관되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사료는 임배세가 도산 안창호(安昌浩, 1878-1938)의 부인인 이혜련(李惠鍊, 1884-1969)에게 보낸 편지⁷⁷⁾이다. 워싱턴 카페테리아의 메모지에 적힌 이 편지는 ‘안부인 전상서’라고 시작되는데, 1932년 안창호가 상해에서 체포당한 것을 위로하고, 이혜련 여사의 헌신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많은 위로를 해주시기를 기도드리며, 자신이 먼 곳에 있기에 직접 찾아가 위로할 수는 없지만 안창호가 속히 풀려날 수 있을 것이라 믿는다는 내용이 적혀있다. 1932년 5월 10일에 쓰인 이 편지에서 독립운동가 부인의 상황을 이해하고 위로하고자 했던 임배세의 모습뿐만 아니라 나라의 독립을 염원했던 마음도 읽을 수 있다.

1933년 5월 27일부터 열렸던 시카고 세계 박람회(World's Fair in Chicago)의 투자실패로 김경의 사업이 어려워지자 1938년 8월경 임배세는 그와 함께 시카고를 떠나 뉴욕으로 옮기게 된다. 1934년부터 약 4년 동안의 활동모습이 뚜렷하게 발견되지 않는 이유는 아마도 그간의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임배세는 뉴욕에 정착하게 되면서 시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대한인국민회의 뉴욕지방회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며 1942년에는 임원 선거에서 대표원이 된다. 다음은 임배세가 뉴욕으로 거처를 옮긴 이후의 활동기록이다((표 5 참고)).

76) “시카고 동포의 실업,” 『신한민보』, 1935.04.04.

77) “김배세가 이혜련에게 보낸 편지,” 독립기념관 소장, 1932.05.10.

〔표 5〕 1938년부터 해방이전까지 뉴욕에서의 활동

날짜	형태	장소	내용
1938년 12월 31일	독창	-	뉴욕 한인의 망년회, 지방학생회 주최, 김영의 사회 임배세 창작가 독창
1939년 3월 12일	음악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도산 안창호 서세 1주년 기념식
1940년 3월 28일	독창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도산 안창호 서세 3년 기념식
1940년 5월 12일	독창	뉴욕 한인교회	임배세 독창 윤성덕 피아노 연주, 박리근 독창
1940년 5월 19일	독창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뉴욕 한인음악구락부 음악대회 임배세 〈날부른다〉 독창 최폴 바이올린 연주, 박리근 독창 이광준, 윤성덕 피아노 병주 등 회원 15명 참여
1940년 10월 20일	낭독 합창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임배세가 ‘광복군 조직성립 낭독’ 음악구락부원 일동 합창
1940년 12월 15일	합창	뉴욕 한인교회	국민회 주최, ‘김호씨 환영’ 임배세, 윤성덕과 합창
1941년 2월 2일	합창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추도식에서 뉴욕한인음악구락부 〈산타령〉
1941년 3월 1일	합창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뉴욕한인음악구락부 합창
1942년 3월 12일	합창	뉴욕 한인교회 예배당	뉴욕한인음악구락부 〈무궁화삼천리〉 합창
1942년 5월 27일	독창	한인궐기대회	한국독립을 위한 궐기대회에서 독창 ⁷⁸⁾

이 중 눈에 띄는 활동은 1938년 12월 31일에 열린 뉴욕 한인의 망년회에서 임배세가 자신이 만든 노래를 불렀다는 기록이다. 임배세가 작곡한 곡

78) 김옥동, 『강용홀: 그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75.

은 지금까지 <금주>만 알려져 왔는데, 당시 1939년 1월 19일자 『신한민보』 기사에서 “김경씨의 부인의 창작가”라고 언급된 것으로 보아 새롭게 발굴되어 본고 말미에 소개할 <나의 성경>이지 않았을까 조심스레 추측해 본다.

임배세는 1940년에 윤성덕, 김상순, 최폴, 조홍식과 함께 뉴욕한인음악구락부⁷⁹⁾를 새롭게 조직했고, 이들과 함께 음악회를 열기도 했다. 뉴욕한인음악구락부는 약 20년 전에 임배세가 미국으로 떠나기 전 주축이 되었던 한양낙영회의 모습과 닮아있는데, 이 두 모임은 기독교 신앙과 음악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다는 공통점이 있다. 뉴욕한인음악구락부는 초기에 매주 모임을 가지다가 월 2회로 모임 횟수를 변경했지만 지속적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며⁸⁰⁾ 음악회를 열었다. 임배세는 1940년 5월 19일 오후 7시 한인예배당에서 열린 음악대회에서 <날 부른다>를 독창했고, 이 밖에도 음악회에서는 구락부원의 합창, 연주 등도 함께 들을 수 있었다.⁸¹⁾

비록 김경의 사업이 기울어 임배세는 그와 함께 뉴욕으로 거처를 옮겼지

79) 1939년에 뉴욕에서 윤성덕, 이병간, 전창수, 조홍식이 참여한 음악구락부의 창립 기념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 이미 비슷한 모임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1940년 4월 7일 뉴욕에서 한인교회를 중심으로 뉴욕한인음악구락부는 ‘새롭게’ 만들어 지는데, 고문으로 윤성덕, 단장 김상순, 회계 최폴, 이전에 재무를 보았던 조홍식은 서기를 맡았고, 감사위원으로 임배세, 박리근, 차진주가 있었다. “한인 음악구락부 뉴욕에서 새로 탄생,” 『신한민보』, 1940.04.25.

80) 모임은 초기에 매주 목요일 오후 8시에 모이다가 11월부터 월2회 모임으로 변경되었다. “뉴욕한인 음악구락부,” 『신한민보』, 1940.12.12. 1941년 여름에 잠시 휴회했다가 가을부터 다시 활동을 개시하여 12월에 열릴 대연주회를 추진하기도 했다. “뉴욕한인음악구락부,” 『신한민보』, 1941.12.04.

81) “뉴욕한인음악구락부,” 『신한민보』, 1940.06.20. 프로그램의 내용은 “회가 - 회원일동 / 취지 - 김상순 / 독창 <사자수>-차진주 / 바이올린 <아베마리아>-최폴 / 플룻 <나사렛>-한영교 / 합창 <양산도 도라지>-여자회원 일동 / 피아노 병주 - 리광준, 윤성덕 / 독창 <날부른다>-임배세 / 광고, 회의설명 및 신입회원 - 윤성덕 / 독창 <쏘렌토>-박리근 / 합창 <삼살개>-회원일동 / 여흥-회원 및 손님 일동 / 독창 <달아달아 밝은 달아>-최폴”이다.

만, 사회 변화를 위한 신념의 실천은 계속되었다. 시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임배세는 뉴욕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조국 독립의 염원을 음악으로 승화시켜나갔다.

4) 네 번째 시기(1945년 이후): 신앙과 일상으로의 귀환

1945년 조선이 독립하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후 임배세는 대외적으로 음악과 관련한 활동을 그리 많이 하지 않았다. 이 시기에 임배세는 무대에서 노래를 하기 보다는 오랜 기간 미국에 머물면서 겪었던 다양한 경험을 살려 미국 한인 사회를 중심으로 활동했다. 그녀는 한국전쟁 기간이었던 1950년대 초 비공식원조기관인 한미재단에서 근무하며 미국 전역으로부터 답지한 구호품을 선편으로 한국에 보내는 작업을 맡았고, 구호품을 보내온 각처의 봉사단체나 개인에게 감사편지를 일일이 타이프로 쳐서 보내는 일을 했다.⁸²⁾ 그리고 1960년 기성 원로 동포들과 신진 유학생그룹이 힘을 합쳐 창설한 뉴욕한인회에서 실행위원으로 참여했으며, 해방 이후에 열린 뉴욕 동포들의 합동 야유회의 준비 위원장을 맡기도 했다.⁸³⁾

김경과 사별한 1966년 이후에는 비교적 안정적인 일을 하며 고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일을 택했다.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그녀가 그간의 미국 생활을 모두 접고 홀로 한국으로 돌아오기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더욱이 한국은 전쟁 이후 군사정권으로 인해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

82) 조종무, “뉴욕한인이야기-1950년대 한인사회 여성파워 베씨김,” 『미주 한국일보』, 2011.11.17.

83) 조종무, “해방 후 뉴욕일원 한인사회(1945-1959),” 『중앙사론』 36 (2012), 540-541. 임배세는 준비위원장을 맡으며 재정이 없던 한인회 야유회를 치루기 위해 한미재단 근무 당시 관련을 맺었던 미국 단체 등을 찾아가 후원을 받기도 했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회사를 찾아가 24명 들이 콜라 13상자를 협찬 받았고 브라이어 아이스크림 회사와 교섭을 벌여 아이스크림 100통을 기부 받았다.

었기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는 것보다는 미국에 남아 자신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나가는 편이 더 낫다고 판단한 듯하다. 임배세는 미국에서 한인 사회의 원로로 활동하면서, 1968년부터 롱 아일랜드 대학교 브루클린 캠퍼스의 도서관에서 15년 이상 근무했다(사진 5) 참고).

[사진 5] 롱 아일랜드 대학교 브루클린 캠퍼스 도서관 직원목록 일부 (1982년 혹은 이후에 작성)⁸⁴⁾



Staff	
Bella Belsky	Level 3, Starting date: 1969
Charlotte Blanding	Level 4, Starting date: 1966; Library 1981
Esther Chynsky	Level 4, Starting date: 1960
Esther Copulsky	Level 4, Starting date: 1968; Library 1981
Cora Dudley	Level 4, Starting date: 1970; Library 1977
Rachel Gabbay	Level 2, Starting date: 1970
Bessie Kim	Level 3, Starting date: 1968
Helen Rosenfield	Starting date: 1956; Library 1972
Reynold Yuska	Level 4, Starting date: 1976
Arnold Zimmer	Level 5, Starting date: 1962

당시 도서관 직원은 일에 대한 경험과 책임 정도에 따라 총 5단계(레벨5가 최상)로 분류되었는데, 마지막 기록에 해당하는 1982년 기록에 따르면 임배세는 레벨3에 해당되었다. 당시 도서관 직원들이 어떠한 일을 했는지

84) 임배세의 이름이 확인되는 이 목록은 당시 직원 목록의 일부이다. 문서에는 작성된 정확한 날짜가 기입되어 있지 않으나, 1982년 자료들과 함께 보관되어있어 1982년 혹은 그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롱 아일랜드 대학교 Louis Pisha 교수와 2018년 1월 11일 교신)

기록되어 있지 않아 임배세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업무를 담당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82년 이후에도 비공식적으로 도서관에서 일했을 가능성이 있다.⁸⁵⁾

이와 비슷한 시기에 임배세는 이화국제재단 이사회에서도 활동했다. 미주지역에서 시작된 이화국제재단은 동창회 지회 역할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모금운동 전략, 국제학생 및 교수 교환 프로그램, 한국과 관계된 미국 기업에 기부 권유, 보조금을 제공해주는 다양한 재단 발굴 업무 등을 맡고, 이화 졸업생을 포함한 미주 지역 한인 기독교인들에게 개인적으로 연락하는 일을 했다. 임배세는 1970년 4월 15일 뉴욕에서 열린 이화국제재단 창립 총회에 이사회에 창립회원이자 초기 공천위원회 구성원 9인중 한 명으로 참석했으며, 이때부터 1978년까지 이사로 재직했다. 또한 이화국제재단 이전에 구성되었던 이화협동위원회에도 참여했고 특별기금 마련을 위해 조직되었던 이화발전위원회에서도 활동했다.⁸⁶⁾ 임배세는 고국으로 돌아가지 못한 채 미국에 머물게 되었지만, 미주 한인사회에서 원로로 활동하며 자신이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갔다.

임배세는 평범한 일상생활 속에서 신앙생활로 안정(安定)하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했다. 교회나 한인사회에서의 활동을 미루어보아, 어린 시절 주목받던 유명한 성악가의 모습은 아니라 하더라도 음악을 사랑하고 음악으로 쓰임 받았던 한 명의 재능 있는 기독교인으로서, 임배세는 공개적인 무대가 아닌 개인적 모임이나 친목회 등 비공식적인 자리에서 노래할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가질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임배세는 오랫동안 섬겨온 뉴욕 한인중앙교회에서 주일 성경학교 교사로 봉사했으며, 장로로 봉직했다. 분명, 임배세에게 음악과 신앙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이 나아가게 하는 활동의 원동력이자 버팀목이었다.

85) 미국 롱 아일랜드 대학교, Louis Pisha 교수의 견해. (2018년 1월 11일 교신)

86) 신장현, 『믿음의 강: 이화국제재단 4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14), 71과 85.

4. 작품, 〈금주가〉(禁酒歌, 1918)와 〈나의 성경〉(1938년경 추정)

임배세는 초창기 성악가로서의 활동 외에도 정동교회와 이화학당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동시대 지식인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일찍이 식민지적 현실과 억압된 조선 여성들의 삶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올랐던 많은 무대를 통해 음악이 가지고 있는 힘을 경험했으며, 당시 조선의 여성으로는 드물게 음악을 도구로 사용하면서 사회에 자신의 목소리를 냈던 지식인이자 음악가였다. 임배세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신념을 바탕으로 사회문제에 공감하고 끌어안아 음악으로 풀어내었는데, 이는 <금주가>를 통해 살펴볼 수 있다.

<금주가>는 1918년 이화학당 재학 시절 정동교회의 김종우(金鍾宇, 1884-1939) 목사로부터 의뢰를 받아⁸⁷⁾ 작사·작곡되었다. 이 곡은 임배세의 자발적인 작곡으로 이루어진 곡이 아닌 의뢰를 받아 착수된 곡이긴 하지만 이전 선교사들의 지침 방식과는 달리 가사에서 조선의 상황을 상세히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임배세의 당시 사회에 대한 비판의식과 성찰을 읽을 수 있다. 따라서 비교적 단순한 선율과 화성으로 이루어진 이 곡은 작곡가로서 임배세의 음악적 재능을 반영하는지에 대한 여부에 앞서, 임배세가 초기 음악활동을 통해 이미 그 재능을 인정받았고 음악가로서 '작곡'이라는 창조적 역할에 '선택'되었다는 점과 노래의 가사를 통해 사회의 문제를 의식적으로 담아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조선에서의 금주 운동은 1903년 원산에서 선교사 로버트 A. 하디(Robert A. Hardie, 1865-1949)⁸⁸⁾의 주도로 미국의 대각성운동의 영향을 받은 절제

87) 정석기, 『한국 기독교 여성 인물사 3』, 47. 임배세는 '김정우' 목사에게 부탁받았다고 언급했지만, 실제로는 시기상으로 볼 때 정동교회의 제1차 목회기간(1919-1927) 동안 교회를 크게 부흥시켰던 '김종우' 목사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88) 로버트 A. 하디(Robert A. Hardie, 1865-1949)는 캐나다에서 태어나 1890년 토론토

운동(節制運動)의 움직임 속에서 생겨난다. 금주, 금연, 도박금지 및 생활 개선 등이 중심이었던 절제운동의 기조와 분위기는 한국감리교에서 발행한 한국최초의 신학 잡지인 『신학월보』(神學月報)⁸⁹⁾에서 일찍이 ‘금주’와 관련된 기록으로 찾아볼 수 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술로 괴로워하고 있었는데, 한 예로 천주교에서 개신교로 개종한 평양의 김주련과 금주에 대해 문답하는 내용의 글이 있다.⁹⁰⁾ 이 글에서는 아무리 술을 끊으려고 해도 끊지 못하며, 술을 아니 먹으면 죽을 듯하고, 조금씩만 먹고 크게 취하지 않으면 어떠할까라고 하는 원초적 질문에 대해 사소한 술도 못 끊으면서 큰일은 어떻게 하며, 작은 죄가 큰 죄를 낳기에 작은 죄부터 경계해야 한다고 대답한다. 술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취하게 만드는 것이니 아예 입에도 대지 말라는 내용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금주를 매우 힘겨워 했으며 이를 기록하여 공유함으로써 금주가 당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다. 또 다른 예는 술을 경계하라는 내용을 담은 “술의 큰 관계”⁹¹⁾라는 사설이다. 이 사설은 술이 몸에 해롭다는 내용과 함께 술과 연관된 세 가지의 ‘부정적인 관계’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술을 마심으로 인해 집이 망하고, 병이 들어 몸이 망하고, 영혼이 망가지기 때문에 술을 끊어야한다고 경고하며 금주를 강조하고 있다.

1911년에 이르면 선교사들은 본격적으로 기독교절제회를 조직하여 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조선으로 파송되어 왔다. 1899년 8월부터 강원도 선교를 담당했으며 1900년 10월 남감리회 중국연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은 후 12월 원산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 후, 1903년 원산부흥운동의 중심이 된다.

89) 『신학월보』(神學月報)는 선교사 조원시(趙元時, George Heber Jones, 1867-1919)가 최병헌(崔炳憲, 1858-1927) 전도사의 협조를 얻어 1900년 12월에 창간한 신학 잡지로, 선교사들과 초기 한국인 지도자들의 활동이나 교회 소식 및 교인 활동 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발간되었다. 『신학월보』는 1904년까지 발간한 후 정간되었다가 1907년에 속간하여 1909년 가을까지 간행되었다.

90) “삼십년전부터 로마교하던이가 술꾼코 예수교에 도라옵,” 『신학월보』 3/4 (1903), 152-153., “술노문담함,” 『신학월보』 3/4 (1903), 153-156.

91) “술의 큰 관계,” 『신학월보』 3/12 (1903), 515-520.

주, 금연에 관한 문서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금주운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해 금주와 관련된 노래를 부르게 했다. 1915년에는 평양에서 금연금주회가 조직되어⁹²⁾ 전국으로 확산되고, 1917년에 이르면 주일학교에서 절제에 관한 내용을 교육하기 시작하여 1920년부터는 각 지방 YMCA를 통해 금주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었다. 잡지와 신문에서도 금주와 금연에 대해 더 많이 언급하며 술과 담배에 많은 돈을 지출하고 있는 세대에 대해 지적했고, 점차적으로 금주와 금연은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 민족 운동과 민족정신 함양 운동 차원에서 더욱 강조되었다. 1922년에 일어난 금주단연운동(禁酒斷煙運動)은 일제의 우민화 정책에 맞선 식민지 조선인들의 건전한 육체와 정신 함양을 위한 노력으로 탄생되어 점차 전국 각지로 퍼져나갔다.⁹³⁾ 『매일신보』 1926년 12월 5일자에는 “삼천명 조선 부인의 술담배 끄는 소리 청년회에서 삼주년 기념”라는 기사와 함께 청년회에서 함께 모여 금주가를 합창하는 모습이 사진으로 실려 있는데, 당시 금주운동은 조선사회에서 벌어졌던 운동 중 가장 큰 운동이었고, “육을 살리고 령을 살리는 운동이며, 죽어가는 조선을 살리는 운동”⁹⁴⁾으로 여겨졌다. 1930년대가 되면, 일제는 금주운동을 종교적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민족 운동 차원으로 받아들인 이유 때문에 금주가를 부르는 것을 금지했다. 식민지 조선인들이 찬송가를 통해서 민족성을 고양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를 내세우며 금주가를 배부하기만 해도 출판법을 위반하는 행위로 간주했는데,⁹⁵⁾ 이는 ‘금주’가 조선인들에게 얼마나 강하게 영향을 끼치고 있었는지를 반증해준다.

<금주가>는 “林빠씨嬢” 작사로 명시되어 『新民公論』(1922)에 실렸으며, 이후 『청년찬송』(1923), 『신당찬송가』(1931), 『합동찬송가』(1949)에도 수

92) “禁煙禁酒會組織(平壤),” 『매일신보』, 1915.12.04.

93) “禁酒斷煙의 大風潮, 각 처에 이러나는 현장을 보라,” 『동아일보』, 1923.01.24.

94) 손메리(孫祿禮), “조선의 금주운동,” 『기독교신보』, 1930.04.30.

95) “禁酒歌 配付한 것을 出版法으로 取調,” 『동아일보』, 1931.09.09.

록되었다. 『한국여성문화논총』에 따르면, 임배세의 <금주가>는 1918년 12월 31일에 세상 밖으로 나왔으며 물산장려운동(物産獎勵運動)이 전개되던 당시에 널리 불렸다고 한다.⁹⁶⁾ 이 시기는 3·1 운동이 일어나기 전으로, 임배세는 어떠한 곡을 쓸지에 대해 많은 고심을 하던 중 이화학당에서 하급생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고,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식민의 어려움과 혼란스러운 상황으로 인해 술로 허송세월을 보내면서 겪고 있었던 술이 인생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공감하며 임배세는 <금주가>를 작곡하게 되었고, 이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라고 여겼다.⁹⁷⁾

이화학당 기숙사에 머물렀던 임배세가 자신에 대해 그리고 비슷한 문제를 공감하고 있는 사람들의 존재를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고자 고민했던 것은 조선에서의 여성 교육에 있어 크고 중요한 발전이라 볼 수 있다. 식민지 조선의 여성들이 가정 안팎의 역할을 가정이 아닌 사회로 눈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기독교와 교육 그리고 근대적인 교육기관 설립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한국 근대 초기 기독교는 복음을 통해서 개인의 삶의 변화를 촉구했고, 교육을 통해 한 개인의 변화가 그가 속한 사회 공동체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뿌리내리게 했다. 임배세의 <금주가>는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 문제를 풀어낸 곡이라는 점과 한국 근대 초기 기독교가 복음을 통해 지향했던 믿음을 내포하고 있는 곡이라는 점에서 당시 음악에 대한 기독교의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다,

96)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화논총』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9), 135.

97) 정석기, 『한국 기독교 여성 인물사 3』, 48-49.

[악보 1] <금주가>

작사·작곡 임배세

First system of the musical score for 'Ginju-ga'. It consists of a vocal line and a piano accompaniment line. The key signature has one flat (B-flat) and the time signature is 2/4. The lyrics are: 금 술 강 산 내 동 포 어 술 들 입 에 대 지 마 라. There are triplets in the piano accompaniment for the words '대지마라'.

Secon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The lyrics are: 건 강 지 력 손 상 하 니 천 치 될 가 늘 두 렵 다. The piano accompaniment continues with a steady rhythmic pattern.

Third system of the musical score, starting with the section marker '후렴' (Chorus). The lyrics are: 아 마 시 지 마 라 그 술 아 보 지 도 마 라 그 술. The piano accompaniment features a more active melodic line in the vocal part.

Fourth system of the musical score. The lyrics are: 조 선 사 회 복 받 기 는 금 주 함 에 있 나 니 라. The piano accompaniment concludes with a final chord.

임배세의 <금주가>는 2/4박자의 총 26마디로 구성되어 있다⁹⁸⁾([악보 1] 참고). 가사는 유절형식으로 된 4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 마시지 마 오, 그 술, 아-보지도 마 오, 그 술, 조선사회 보전키는 금주함에 있나이다.”라는 후렴구가 있다. 금주(禁酒)가 절제운동의 중심이었던 만큼 임배세의

98) 이 악보는 『신명찬송가』(1931) 230장에 실린 악보를 옮긴 것이다.

<금주가>보다 앞서 금주의 내용의 가사를 가진 곡이 있었는데, 바로 초기 감리교 선교사였던 노블 부인(Mattie Wilcox Noble, 1872-1956)⁹⁹⁾이 지은 찬미가이다. <술을 껌하는 찬미>(Touch not the Cup: It is Death to the Soul)¹⁰⁰⁾라는 제목으로 쓰인 노블의 금주는 임배세가 쓴 <금주가>가사보다 약 14년 앞선 1904년에 발표되었다. 두 곡의 가사를 비교해 볼 때(표 6) 참고), 노블 부인의 가사가 술의 해로움을 알리며 술을 멀리하라는 내용의 초기 절제운동의 내용을 담은 가사라면, 임배세의 <금주가>는 당시 조선의 모습과 상황을 더 직관적으로 보고 있으며, 술을 마시는 대신에 학교 건설과 자녀 교육에 힘쓰기를 강조하는 미래 지향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 개인의 행동이 사회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의식이 모여 국가를 위한 일로 나아갈 수 있고, 이는 곧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말하는 각 연의 직접적인 메시지는 조선 사회를 보전하는 것은 금주를 하는 것에 있다고 강조하는 후렴구에서 유니즌으로 완전하게 결합되어 한층 더 강조된다. 즉, 술을 마시는 것에 돈을 아끼고, 아낀 돈을 자녀 교육에 사용하라는 가사에는 금주라는 작은 실천이 사회를 바꿀 수 있고, 교육이 나라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사회 계몽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임배세의 <금주가>는 사회의 현 세태를 직시하고 냉정하고 정확하게 판단하여 더 나은 조선 사회를 꿈꾸며, 이를 행동으로 바꾸어 실천해 나가려했던 임배세 자신의 의지이자 조선인들의 의지를 대변하는 것이기도 했다.

99) 마티 윌콕스 노블은 루스 노블(Ruth Noble Appenzeller, 1894-1986)의 어머니로 1892년 남편인 윌리엄 아서 노블(William Arthur Noble, 1866-1945)과 함께 내한한 선교사로 1899년 정의여학교를 설립했다.

100) Mrs. W. A. Noble, "Touch not the Cup: It is Death to the Soul," 『신학월보』 4/5 (1904), 209.

〔표 6〕 〈금주가〉 가사 비교

노블 부인의 〈술을 검하는 찬미〉 가사(1904)	임배세의 〈금주가〉 가사(1918)
<p>一. 술은 네 영혼을 죽게 하니, 먹는 자 결단날 줄 아니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잔을 만지지 마라 그 속에 마귀 있는 줄 몰라, 죽음 주는 잔을 삼가하고 소경 갖치 구렁에 빠진다. 맛보지도 말아라.</p> <p>二. 그 잔 속에 고은 빛잇서도 자만 호갓치 빗치 비취되 만지지 마라. 만지지 마라. 잔을 되 만지지 마라 이 잔 속에 쏘는 것 잇스니 저를 살피지 못하게 하니 그 독한 것 맘속 드러가오. 잔을 만지지 마라.</p> <p>三. 방울만큼도 마시지 말고, 사랑하는 자의 권면 듯고 만지지 말고 마시지 마라. 잔을 만지지 마라. 네 집을 위하여 먹지 말고, 하나님과 나라를 위하여 친구 위하여 그만 두어라. 잔을 만지지 마라.</p>	<p>一. 사랑하는 동포들아 술을 입에 데지마오 건강지력 업서지니 텃치될가 두려웁다 (후렴) 아 마시지 마오, 그 술 아 보지도 마오, 그 술 조선사회 보전키는 검주함에 있나이다</p> <p>二. 폐가망신하는 술은 빛도 내서마시면서 자녀 교육하는 일은 일전 한 푼 안쓰려네</p> <p>三. 전국 술값 모다 합해 곳곳마다 학교 세워 자녀수양 식히이면 동서문명 지지안네</p> <p>四. 하느님께 받은 재능 부모님께 받은 귀테 술의 독기 밋지 말고 국가 위해 일합세다.¹⁰¹⁾</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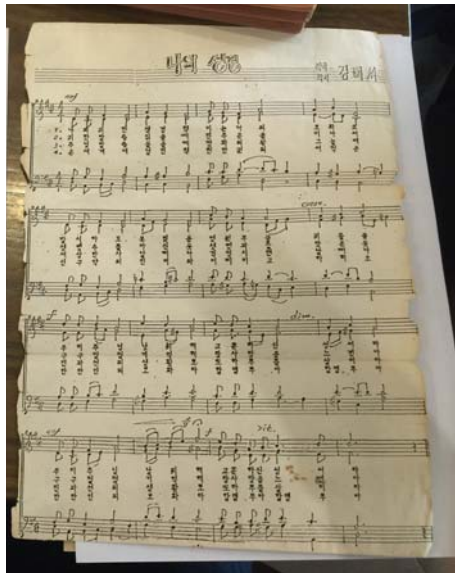
지금까지 알려진 임배세의 곡은 <금주가>가 유일했으나 새롭게 발굴된 임배세의 또 다른 곡 <나의 성경>을 소개하고자 한다((사진 6) 참고)¹⁰²⁾. 이 곡은 앞서 언급했듯이 1938년 12월 31일 뉴욕 한인의 망년회에서 임배

101) 林培世 嬢, “禁酒歌,” 『新民公論』 3/1 (1922), 82., 김수현·이수정, 『한국 근대음악
기사 자료집: 잡지편 1권』 (민속원, 2008), 362. 『신명찬송가』(1931)에 실린 가사
와는 표현이 조금 다르지만 전체적인 가사의 내용은 동일하다.

102) 임수완 장로님 소장. 이 곡이 세상에서 빛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신 임수완 장
로님과 허세립 전도사님(미국 내쉬빌 한인장로교회)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세의 ‘창작가’로 대중에게 소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곡의 작곡년도에 관해서는 필사본에 “김배세 작사·작곡”으로 명시되어 있어, 결혼 이후 김배세로 활동하기 시작한 1928년 이후에 작곡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가지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임배세가 1934년경부터 약 4년간 별다른 음악 활동이 없었고, 김경의 사업이 기울어진 후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삶의 터전으로 옮겨야 했을 만큼 이 시기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라는 점이다. 임배세는 1938년 시카고에서 뉴욕으로 떠나 그 해 마지막 날 한인 교민들과 함께한 모임에서 자신의 곡을 소개했다. 짐작해 보건데, 바로 이 시기에 임배세는 더욱 신앙에 의지하면서 자신의 처지에 절망하거나 굴하지 않고 고통을 감내해 나갔으리라 여겨진다. 그리고 평소 지침으로 삼았을 성경 말씀을 따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나의 성경>을 작곡했고 이를 극복의 발판으로 삼으려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진 6] 임배세의 <나의 성경> 필사본



이 곡은 16마디의 비교적 짧은 선율로 D장조, 4/4박자, 4성부 찬송가풍의 유절형식으로 된 총 4연의 가사를 가지고 있다. 가사를 보면((악보 2) 참고) 임배세가 성경에 대한 애정을 가사로 담아내고 있는데, <금주가>와 같은 방식으로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같은 가사로 두 번 반복되고 있는 각 연의 후렴구는 성경의 말씀들을 가르침으로 삼고 하루를 살겠다는 개인적인 다짐으로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는 면에 있어서 <금주가>의 구성과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그러나 악보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음역이 넓고, 음고의 변화에 따른 다이내믹 변화가 세세히 표기되어 있어 미국 유학 이후 다양한 음악 경험을 통해 <금주가>에 비해 조금은 더 발전된 형태로 작곡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고음을 향해 뻗어 나아가는 클라이맥스는 당시 임배세의 성악가로서의 역량을 추측하게 해준다.

[악보 2] 〈나의 성경〉

임배세 작사·작곡

나의 귀한 성경책 이 나의 보화요
 잠시라도 못 잊을 영원무궁 귀중품
 우리 주님 날 위해 교훈하신 성서라
 우리 귀한 말씀 날 위해 교훈하신 성서라

- 1절) 나의 귀한 성경책 이는 나의 보화요 / 잠시라도 못 잊을 영원무궁 귀중품
 우리 주님 날 위해 교훈하신 성서라 / 우리 주님 날 위해 교훈하신 성서라
- 2절) 귀한 말씀 읽을 때 진주문을 지나서 / 생명수를 마신 듯 생명과를 마신 듯
 구구절절 기억해 참사랑을 느낀다 / 구구절절 기억해 참사랑을 느낀다
- 3절) 주님 말씀 들을 때 평화의 왕 그늘에 / 세상만사 날 때나 걱정시런 날 때나
 진과 선의 생활로 또 하루를 살리라 / 진과 선의 생활로 또 하루를 살리라
- 4절) 온 세계에 널린 책 천만권의 서적은 / 신구약의 진리와 어찌 비교 하리오
 만민인의 보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 만민인의 보화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5. 나가며

지금까지 다양한 1차 자료들과 기록을 바탕으로 임배세의 삶과 활동을 살펴보았다. 임배세의 활동은 초기에 한정적인 음악 교육과 식민지 조선의 정치, 사회, 문화적인 한계로 인해 보다 전문적인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후대 음악가의 모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총 4시기로 구분할 수 있었던 삶을 통해 임배세는 세상을 향해 자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성악가에서 출발하여 세상을 위해 신념을 실천하는 음악가로 변모해가며 끊임없이 노력하는 진취적인 모습을 보였다.

첫 번째 시기는 1923년 미국으로 떠나기 전까지 식민지 조선에서 음악을 교육 받고 활동을 경험한 시기로 이화학당에서 교사로도 활동을 하지만 성악가로서의 활동이 주를 이루었다. 임배세는 유명한 성악가로서 음악회, 모임, 행사 등에서 노래하기도 했고 기독교 집회에서는 민중에 호소하는 강연과 함께 음악을 도구로 자신을 표현하며 계몽적인 무대에 섰다. 그리고 다수의 음악회뿐만 아니라 음악 연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한양낙영회에서 주축이 되어 활동하기도 했다. 무엇보다도 이화학당 재학시절에 작사·작곡한 <금주가>는 자신이 속한 사회를 냉철하게 보고 변화를 촉구하는 계몽적이고도 미래지향적인 가사를 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두 번째 시기는 미국으로 건너가 하와이 한인기독교학원을 거쳐 오벌린 대학과 일리노이 웨슬리언 대학교에서의 유학한 시기로 잠재되어 있던 사회 문제의식이 발현되기 시작한 때이다. 임배세는 종교교육을 전공했지만, 성악을 지속적으로 공부하며 미국 유학생 모임을 중심으로 꾸준히 무대에 올랐다.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조선에서부터 잠재되어있던 사회에 대한 문제의식은 더욱 강하게 발현되었고, 식민지 조선의 어려운 상황을 알리려고 노력했으며, 매순간 자신이 조선에서 온 학생임을 잊지 않고 고국으로 돌아가 자신의 배움을 사회에 환원하겠다는 다짐을 더욱 강하게 했던 시기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28년 김경과 결혼한 이후부터 1945년 해방 이전까지 시카고와 뉴욕에서 다양한 음악활동을 하면서 조국의 독립과 여성들의 삶의 변화를 위해 후원자로서 물질적 지원을 아끼지 않은 시기이다. 임배세는 독립운동을 했던 남편 김경과 함께 시카고와 뉴욕의 한인사회 지도자들과 대한인국민회를 중심으로 활동하면서, 조선 여성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후원금을 보내거나 조국의 독립을 위해 모금을 하고 지원을 하는 등 디아스포라로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마지막 시기는 해방 이후로 뉴욕에 머물며 자신에게 좀 더 집중한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음악과 관련하여 무대에 서는 화려한 활동보다는 일상에서 조국의 변화를 지지한다. 그리고 한미재단에서 근무하는 등 조국을 위해 자신의 오랜 미국 생활의 경험을 살릴 수 있는 일들을 했다. 김경과 사별한 후에는 롱 아일랜드 대학교 브루클린 캠퍼스의 도서관에서 근무하면서 미주 지역에서 시작된 이화국제재단에서 이사로 재직했다. 이 시기는 교회와 뉴욕 한인사회를 중심으로 대외적인 활동보다 자신이 음악활동을 함에 있어서 원천이자 중심축이었던 기독교 신앙생활에 집중하여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뉴욕 한인중앙교회의 장로로 오랫동안 봉직했다.

임배세는 성악가로서 유명했고 많은 무대에 섰지만, 독창회를 열었다는 기록은 없다. 그런데, 그녀를 한국 ‘최초’의 여성 성악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금주가>만으로 그녀를 ‘최초’의 여성 작곡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 다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음악가’로서 기독교 신앙과 함께 ‘음악’을 매개로 자신이 속한 사회에서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 정체성을 찾아나가며, 기독교를 통한 음악 교육이 개인의 자아실현의 차원을 넘어서 배움과 믿음을 통해 갖게 된 계몽 의식과 사회적 실천의식의 결합을 통해 얼마나 다양한 방식으로 발휘될 수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임배세는 초창기에 서양 음악을 공부한 음악도의 모습이었으나 점차적으로 보다 자유로운 목소리를 표출할 수 있는 공간에서 음악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여 공감대를 이끌어내어 조국의 독립과 여성의 억압받던 사회적 위치의 변화를 위해 노력했던 지식인이자 진취적인 음악가였다. 본 연구자는 그녀의 행보에서 자신이 받은 음악 교육을 사회에 끊임없이 환원하고자 했던 문제의식이 투철했던 실천가로 근대의 '선구자적' 여성음악가였음을 확인했다.

임배세는 근대화 과정, 식민지 시기, 한국 전쟁과 분단, 그리고 이후 현대화 과정에 이르기까지 20세기의 한국의 근·현대사를 모두 경험한 음악가로, 그녀의 삶은 그 자체가 한국의 역사이다. 그녀의 삶에서 후배 음악인이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암울한 환경에서도 '배세'(培世)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세상의 희망과 용기'를 놓지 않고 북돋으며 신앙을 통해 극복해나갔다는 것이다. 임배세는 식민지 조선에서 교육을 받았고, 자신의 더 큰 쓰임을 위해 유학을 떠났으며, 조국의 독립을 보았으나 전쟁과 분단의 아픔 가운데 디아스포라로서 타국에서 생을 마친다. 아직도 한국의 많은 여성음악인들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창작 공간의 제한을 경험하며 본인의 더 나은 활동을 위해 이주를 선택하기도 하는데, 이는 20세기 초 식민과 서구의 근대화의 잔재(殘滓)가 남아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 연구를 통해서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 즉, 역사를 되짚어보면서 미래의 우리의 모습을 다시 생각해 볼 수 있는 성찰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

참고문헌

<1차 자료>

- “교회소식.” 『뉴욕한인중앙교회 소식지』. 1999.12.19.
- “김배세가 이해런에게 보낸 편지.” 독립기념관 소장, 1932.05.10.
- “삼십년전부터 로마교하던이가 슬끈코 예수교에 도라옴.” 『신학월보』 3/4 (1903), 152-153.
- “술노문담함.” 『신학월보』 3/4 (1903), 153-156.
- “술의 큰 관계.” 『신학월보』 3/12 (1903), 515-520.
- 林씨 孃. “禁酒歌.” 『新民公論』 3/1 (1922), 82.
- 홍난파. “歌劇의 이야기.” 『開闢』 31 (1923), 26-32.
- “A Letter to Commissioner General of Immigration Washington D. C., written by Secretary of Oberlin College.” Oberlin College Archives, 1925.10.01.
- “A Memo on Lim-Bessie E. (Otsusen Rin).” Oberlin College Archives.
- “A Student Card of Bessie E. Lim.” Oberlin College Records, Oberlin College Archives.
-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General Catalogue of Studen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nnual Catalogue* 25/2 (1927), 142-155.
- _____. “General Catalogue of Students.”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Annual Catalogue* 26/2 (1928), 130-141.
- “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Library Staff 1982 or later.” Long Island University Brooklyn Campus Library, 1982.
- Mrs. McGary, E. M.. “Music in the School.” *The Korea Mission Field* 11/4 (1915), 103-105.
- Mrs. Noble, W. A.. “Touch not the Cup: It is Death to the Soul.” 『신학월보』 4/5 (1904), 209.

『경향신문』

김활란, “나의 師友錄: 소꿉동무 林培世와 귀엽·매영,” 1967.11.01.

“우리文化: 音樂,” 1973.02.27.

이상만,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본 이면사(2), 찬송가 통해 얻은 서양음
조,” 1985.10.19

_____,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본 이면사(12), 梨花學堂,” 1985.12.28.

_____, “한국음악백년 일화로 엮어본 이면사(13), 첫 洋樂 연주회,”
1986.01.18.

『기독신보』

孫袂禮, “조선의 금주운동,” 1930.04.30.

『동아일보』

“看護員의 卒業,” 1920.04.25.

“主日學校音樂會,” 1920.06.11.

“梨花傳道隊,” 1920.06.21.

“救靈의 絶叫와 =神聖한 同情金=,” 1920.06.23.

“漢陽樂英會 組織,” 1920.06.28.

“人權과 男女平等,” 1920.07.10.

“平壤의 音樂會成況,” 1920.07.21.

“今夜의 聲樂會,” 1920.08.05.

“極히 沈默하고多情한 歡迎裏에 米宣教師團入京,” 1920.08.31.

“在東京文園社主催 東西音樂演奏會開催豫定,” 1920.09.06.

“樂英會演奏會 회원모집차로 무료공개,” 1920.09.09.

“一千萬의 女子에게,” 1920.10.17.

“新進女流의 氣焰, 음악과 인생의 관계,” 1921.02.25.

“樂英會擴張計劃 회원을 새로히 모집,” 1921.05.16.

“四十歲婦人의 讀本朗讀,” 1921.05.21.

“主日學校大會,” 1921.11.07.

“朝鮮女子教育協會에 對하야,” 1922.03.25.

“女子苦學生相助會發會式,” 1922.06.24.

- “音樂個人教授,” 1922.09.01.
 “禁酒斷煙의 大風潮, 각 처에 이러니는 현장을 보라,” 1923.01.24.
 “모임-조선녀자교육협회주최강연회, 여자의 사회생활에 대하여,” 1923.02.28.
 “中央幼稚園의 音樂演奏會,” 1923.05.23.
 “別淚에 져진 昨朝의 京城驛,” 1923.09.02.
 “사회를 지도할 음악가의 책임,” 1925.08.08.
 “延專音樂大會의 曲目과 順序,” 1929.11.29.
 “해외에서 맨든 가정(1) 약혼 기간 긴 것은 문제,” 1929.12.01.
 “禁酒歌 配付한 것이 출판법으로 取調,” 1931.09.09.

『매일신보』

- “青年會의 降誕祭, 祝賀大音樂會,” 1914.12.14.
 “禁煙禁酒會組織(平壤),” 1915.12.04.
 “京城樂隊의 音樂 演奏會, 십팔일밤에 청년회에서,” 1919.11.15.
 “京城樂隊의 演奏, 입장자가 오백여인, 대성황 중에 끝나쳐,” 1919.11.20.
 “보고 들을 것: 자선음악회,” 1920.06.12.
 “幼年主日學校의 자선음악회,” 1920.06.14.
 “苦學生갈돕회 秋期音樂演奏會,” 1920.10.01.
 “梨花傳道隊의 救靈會 개최,” 1920.06.23.
 “音樂과 舞蹈會,” 1921.06.06.
 “梨花音樂演奏,” 1921.06.09.
 “少年部 主催의 新春音樂大會,” 1922.02.04.
 “大盛況의 音樂會,” 1922.02.07.
 “水害救濟, 活寫淫樂會,” 1922.09.27.
 “모임: 釋尊 降誕 祝賀會, 釋誕 記念講演會, 中央幼稚園 音樂會,” 1923.05.23.
 “天使의 會습 같은 유치원 음악회,” 1923.05.27.
 “삼천명 조선부인의 술담배 쓴차는 소리 청년회에서 삼주년 기념,” 1926.12.05.

“樂壇先驅者에 讚歌-今夜에 謝恩音樂會 開催-府民館에서,” 1941.11.27.

『신한민보』

“김호연씨의 행혼,” 1921.06.02.

“하와이,” 1923.10.25.

“쉬카고 학생총회,” 1927.09.01.

“김경씨 부인 입원,” 1929.02.07.

“김경씨 부인이 퇴원하여,” 1929.02.21.

“김윤량 여성 인도자가 본국으로 돌아가,” 1929.08.08.

“김경씨 부부 모국방문,” 1929.09.12.

“大韓人國民會,” 1930.02.20.

“국민회총회 대의원회,” 1931.01.22.

“김경씨 부인 선교 대회에 참석,” 1931.01.29.

“아펜젤라양 환영회,” 1931.01.29.

“시카고 한인사회 소개,” 1931.02.12.

“중부와 중서부의 학생연회 대성황리에서 유학생이 귀국 후에 취할 적응
책 도구,” 1931.06.25.

“시카고 에벳주일 성황,” 1931.06.25.

“김성수씨 환영,” 1931.07.16.

“신년음악강연대회,” 1932.01.21.

“국민회창립기념식,” 1932.02.11.

“시카고 학생회,” 1932.04.07.

“김경씨 부부 뉴욕 통과,” 1932.06.16.

“제十四회 유학생대회,” 1932.07.07.

“쉬카고교회대회,” 1932.08.18.

“김박사 축하 겸 전별회,” 1932.09.08.

“국민회 창립 제24주년기념 윤이양 의사 추도회,” 1933.02.02.

“강영승 박사 환영회,” 1933.02.23.

“안익태씨 음악독주회,” 1933.07.27.

- “시카고 동포의 실업,” 1935.04.04.
 “뉴욕한인의 망년회 지방학생회로서 주최,” 1939.01.19.
 “한인 음악구락부 뉴욕에서 새로 탄생,” 1940.04.25.
 “뉴욕 한인교회의 어머니 주일 기념,” 1940.06.06.
 “뉴욕 한인음악 구락부,” 1940.06.20.
 “뉴욕도 대성황,” 1940.10.31.
 “뉴욕 한인 음악 구락부,” 1940.12.12.
 “뉴욕지방회의 김호씨 환영,” 1940.12.26.
 “각 지방회 二一 기념식,” 1941.02.13.
 “뉴욕 한인 음악 구락부,” 1941.12.04.
 “독립금,” 1942.02.26.
 “독립금,” 1942.04.02.
 “독립금,” 1942.06.18.

『조선일보』

- “保護女會主催로 音樂과 活動 盛況,” 1921.09.19.
 “中央幼稚園主催 音樂大演奏會,” 1923.05.23.

『중외일보』

- “금의로 환향한 림배세 녀사를 차자서,” 1929.11.30.

『황성신문』

- “漢城尙洞青年學院捐助金廣告,” 1905.02.13.

The Argus

- “New Students Come: For Second Semester,” February 10, 1927.
 “Y. W. C. A. Meeting,” October 13, 1927.
 “Miss Bessie Lim Gives Interesting Details of Life in Korea,” November 10, 1927.
 “When East Meets West at Wesleyan,” February 16, 1928.

“Miss Bessie Lim of Korea,” March 15, 1928.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Bulletin.

“Our New Alumni,” December 1, 1928.

“Class Notes,” *Alumni Issue.* March 1, 1955.

““Lost” Alumni,” *Alumni Issue.* January 1, 1957.

<2차 자료>

- 강선미. “조선과전 여선교사와 (기독교)여성의 여성주의 의식형성.”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2.
- 김경일. 『여성의 근대, 근대의 여성』. 푸른역사, 2004.
- 김구 / 도진순 주해. 『백범일지』. 돌베개, 2005.
- 김부자 / 조경희·김우자 옮김. 『학교 밖의 조선 여성들: 젠더사로 고쳐 쓴 식민지 교육』. 일조각, 2009.
- 김수현·이수정. 『한국 근대음악기사 자료집』. 민속원, 2008.
- 김옥동. 『강용홀: 그의 삶과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 문옥배. 『한국교회음악 수용사』. 예술, 2004.
- 문옥표 외. 『신여성』. 청년사, 2003.
- 민경배. 『서울 YMCA 운동 100년사 (1903-2003)』. 상록문화, 2004.
- 박의경. “한국여성의 근대화화 와 기독교의 영향.” 『한국정치외교사논총』 25/1 (2003), 31-56.
- 북미조선학생총회 편. 『(북미유학생잡지) 우라키 1』. 한림대학교 아시아문화연구소, 1999.
- 손태룡. 『한국의 음악가』. 영남대학교출판부, 2003.
- 신장현. 『믿음의 강: 이화국제재단 40년사』. 이화여자대학교 통역번역연구소, 2014.
- 이명선. “식민지 근대의 ‘신여성’ 주체형성에 관한 연구-성별과 성의 관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2002.
- 이소라. “1952-55년 한미재단의 활동과 그 역사적 성격.” 석사학위논문, 서

- 울대학교, 2015.
- 이유선. 『한국양악백년사』. 음악춘추사, 1985.
- 이화여자대학교 음악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음악대학의 역사: 1886-2002』. 나남출판사, 2003.
-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편. 『이대인명록』. 이화여자대학교, 2004.
-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문화논총』 제2판, 이화여자대학교, 1999.
- 정동제일교회 역사편찬위원회. 『정동제일교회 125년사』. 정동삼문출판사, 2011.
- 정병준. “근대 동아시아 여성들의 해외유학과 사회적 역할: 일제하 한국여성의 미국유학과 근대경험.” 『이화사학연구』 39 (2009), 29-99.
- 정석기. 『한국 기독교 여성 인물사 3』. 쿼란 출판사, 2011.
- 조종무. “뉴욕한인이야기-1950년대 한인사회 여성파워 베씨김.” 『미주 한국일보』, 2011.11.17.
- _____. “해방 후 뉴욕일원 한인사회(1945-1959).” 『중앙사론』 36 (2012), 535-572.
-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편. 『한국찬송가전집 7』. 한국교회사문헌연구원, 2011.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예술연구소 편. 『한국 작곡가 사전』. 시공사, 1999.
- 함흥근 엮음. 『이화100년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94.
- 허세림. “나의 3·1절.” (미발행)
- _____. “임배세 할머니를 뵙고 와서.” (미발행)
- 홍선표. “일제하 미국유학연구.” 『국사관논총』 96 (2001), 151-182.

Abstract

**Bessie Lim (林培世, 1897-1999),
the ‘First’ Woman Musician in Modern Korea:
Seeking a Better Society through Songs**

Jeong Youn Chang

This paper is on Bessie Lim (林培世, 1897-1999), who has been mentioned the ‘first’ woman composer and singer in modern Korea but never researched yet. Tracing her life and activities, revealing her thoughts on music with newly discovered primary sources—the birth certificate, newspaper, magazine, church records, school records, hand-writing letter, compositions and interview articles—I study how this famous soprano, who was trained under Christianity and colonial experiences and was eager to learn with achieving her dream, had become to have social perspectives to the society where she had belonged to. Especially I first reveal both her life after studying abroad from Joseon to U. S. A. and her activities as a diaspora supporting women in her homeland and yearning for independence of Joseon. Reading her activities with diverse sources in context, this study sheds new light on her as a pioneering woman musician in modern Korea.

I took a look into Bessie Lim’s life dividing into 4 periods based on changes of her life and places of activity. The first period is the time in Joseon before she left to Hawaii in 1923, when Bessie Lim had been educated at Ewha Haktang (이화학당/梨花學堂) and sung on stage as a famous soprano. The second is the time from 1923 to 1928, she was a teacher at Korean Christian

Institute (한인기독교학원/韓人基督學院) in Hawaii and was a student studying abroad in Oberlin College and Illinois Wesleyan University. From this time, her latent social perspectives had started to be manifested in earnest. The third is the time when it is from 1928, the year of her marriage with Kyung Kim (김경/金慶/Bernard Kim, 1888-1966) to 1945, independence year of Joseon. As a diaspora, she supported women in Joseon and sent supporting payments for independence of country. Bessie Lim's diverse activities in music field are mostly found before 1945. And the last is the time after 1945 that she concentrated herself on her Christian faith staying in New York.

Music for women, educated by Christianity in Korea under Japanese rule, was not just for enjoyment but a powerful tool for representing their identities. Bessie Lim's life was full of christian faith and it shows a big journey of her finding her identity in the society with using 'music.' She tried to have her own voice in public squarely looking at current situation and the problems of it. She believed that music could make society better when returning what they have learned, and strongly recommended "this is a 'must-do' of musicians." Bessie Lim was a 'musician' in modern Korea, devoting herself to put her learning and beliefs into action with songs.

In addition, I also research the historical and socio-cultural meaning of *Temperance Song* (금주가/禁酒歌, 1918), which is known as her sole surviving song until now, and I first introduce her newly discovered song, *My Bible* (나의 성경, alleged 1938). These two songs ascertain how much influence Christianity in modern Korea has on musicians. A pioneering woman musician, Bessie Lim shows one aspect of women musicians with struggling for herself and society in modern Korea.

Keywords: Bessie Lim, Bessie Kim, *Temperance Song*, *My bible*, Korean modern woman musician, Modern music education, diaspora, Kyung Kim

투고일	심사일	게재 확정일
2018년 10월 15일	2018년 11월 10일 - 11월 30일	2018년 12월 3일